

배 민 수 교수지도  
석사학위청구논문

하이네의 시에 붙인  
R. Schumann의 Liederkreis  
Op.24에 관한 분석연구

2008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반 주 학 과  
최 속 희

# 인준서

최숙희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하이네의 시에 붙인  
R. Schumann의 Liederkreis  
Op.24에 관한 분석연구

배 민 수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07년 11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반 주 학 과  
최 속 희

## 논문개요

슈만(Robert Schumann 1810~1856)은 1940년 사랑하는 여인 클라라와의 결혼을 통해 인생에 있어 새로운 전환점을 맞게 되는데, 이 시기에 작곡된 가곡들은 그의 전 생애를 통해 남긴 가곡들보다 19세기 리트의 이상적인 유형을 제시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 해는 “가곡의 해”라 불릴 만큼 그의 음악에 있어 예술가곡의 절정을 이룬 시기이다.

<리더크라이스(Liderkreis) Op. 24>는 슈만이 클라라와 결혼하기 몇 달 전인 1840년 2월에 작곡된 작품이다. 하이네의 <노래의 책(Buch der Lieder)>에서 ‘젊은날의 아픔들(Junge Leiden)’ 중 ‘노래들(Lieder)’ 연시 9개에 곡을 붙였으며 슈만이 피아노 음악에서 가곡 분야로 옮겨간 초기의 작품으로 연가곡 중 처음으로 작곡된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본 논문은 <Liderkreis Op. 24>의 분석을 통하여 슈만의 작품 세계를 깊이 있게 이해하는 작업으로 본론에서는 슈만의 가곡의 특징들에 대해 여러 각도로 조명해보고 작시자 하이네와 하이네 시에 의한 슈만의 작품을 살펴보았다. 또한 시의 원문과 번역, 분석을 통해 시와 반주와의 상호 관계성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시의 내용과 분위기에 따른 효과적인 반주법을 심도 깊게 연구하고자 한다.

도표를 이용하여 각곡의 구조를 살펴보고 조성의 변화, 아티큘레이션, 악상 프레이즈 등의 요소를 살펴 가사를 중심으로 반주와의 연관성을 고찰하였다.

# 목 차

## 논문 개요

I. 서론 .....	1
II. 이론적 배경 .....	4
1. 슈만의 가곡 .....	4
1) 시(가사)의 특징 .....	7
2) 피아노 반주의 특징 .....	8
2. 하이네와 시 .....	10
1) 하이네 .....	10
2) 슈만과 하이네 .....	13
3. 리더크라이스 Op.24 .....	15
III. 작품분석 .....	17

## 리더크라이스 Op.24의 분석연구

1. Morgens steh ich auf und frage (아침에 일어나면 나는 묻네)	
1) 가사의 원문 및 번역 .....	17
2) 악곡 분석 .....	17
2. Es treibt mich hin (나는 초조하여)	
1) 가사의 원문 및 번역 .....	25
2) 악곡 분석 .....	26
3. Ich Wandelte unter den Bäumen (나는 나무들 밑을 서성였네)	
1) 가사의 원문 및 번역 .....	36

2) 악곡 분석 .....	37
4. Lieb Liebchen, leg's Händchen (내 사랑아, 너의 두 손을)	
1) 가사의 원문 및 번역 .....	45
2) 악곡 분석 .....	46
5. Schöne Wiege meiner Leiden (내 고통의 아름다운 요람)	
1) 가사의 원문 및 번역 .....	54
2) 악곡 분석 .....	56
6. Warte, warte, wilder Schiffmann (기다려라, 거친 뱃사람들아)	
1) 가사의 원문 및 번역 .....	73
2) 악곡 분석 .....	74
7. Berg' und Burgen schau herunter (산과 성이 비쳐보이네)	
1) 가사의 원문 및 번역 .....	88
2) 악곡 분석 .....	89
8. Anfangs wollt ich fast verzagen (처음에는 희망도 없이)	
1) 가사의 원문 및 번역 .....	98
2) 악곡 분석 .....	98
9. Mit Myrten und Rosen (미르테와 장미꽃을)	
1) 가사의 원문 및 번역 .....	101
2) 악곡 분석 .....	103
IV. 결 론 .....	120

## 참고문헌

## ABSTRACT

## I. 서론

예술가곡은 18세기에서 20세기에 걸쳐 만들어진 성악곡들로서 질 높은 문학적인 시에 음악이 결합한 독특한 형태의 성악곡을 말한다. 이전의 성악 음악이 반주가 노래에 딸려 있었던 것과는 달리, 예술가곡은 시와 노래와 반주가 동등한 위치를 갖으며, 이러한 시와 음악의 이상적 결합은 그 자체로 완벽한 예술 형식을 이루고 있다.

낭만시대의 독일가곡은 예술적 가치가 있는 새로운 장르로써 예술가곡(Lied)으로 독립되었다. 낭만주의<sup>1)</sup>는 독일 예술가곡의 중요한 개념으로 자리 잡게 되는데, 모든 낭만주의적 문학의 주제들은 예술가곡 속에서 보여 진다.

19세기에 이르러 예술가곡은 엄청난 발전을 이루게 되며 그 주된 요인으로 는 피아노의 지속적인 발달과 크게 융성한 독일 시문학의 발달을 들 수 있다. 규모가 커지고 새로운 페달기능에 힘입어 섬여림이 자유로워지게 된 피아노는 19세기 낭만주의 시대의 최고의 악기가 된다. 풍부한 음색과 다양한 음악적 표현력을 갖추으로써 성악성부와 화합하고 이상적인 반주를 제공해 줄 수 있게 되면서 피아노 반주의 중요성은 매우 높아지게 된다.

또한 18세기 후반부터 발달한 괴테(Johann Wolfgang von Goethe, 1749~1832) 이후의 시문학은 밀러(Wilhelm Müller, 1794~1827), 하이네(Heine, Heinrich, 1797~1856), 아이헨도르프(Joesph von Eichendorff, 1788~1857),

---

1) 낭만주의는 1790년에서 1910년에 걸쳐 유럽지역을 중심으로 지속되었던 운동으로 고전시대의 합리주의와 계몽주의, 물질주의에 대한 반동으로 문학과 예술에 나타난 변화이다. 낭만주의는 계몽주의 시대로부터 억눌려 오던 인간의 본능적 욕구를 밖으로 표출하고자 하는 요구로부터 싹터 나온 것으로 내면의 세계, 환상, 과거에 대한 동경, 자연 등에 주된 관심을 가지는 문화적 운동이라고 볼 수 있다. 과장되면서도 절제미가 있고, 환상적이면서도 감동과 해학이 있으며 진실 되면서도 모순된 표현을 추구하는 낭만주의 흐름은 19세기 전반에 걸친 음악 창작에 큰 원동력이 되었다. 이러한 문학계의 '낭만주의 사조'는 1820년경 음악사조에 도입된다.

낭만주의 음악은 19세기 전반에 걸쳐 이루어졌는데 인간의 개성을 존중하고 작곡가의 사상과 자유스런 감정의 표현을 주로 하였다. 이것은 성악음악에 있어서 음악과 시 사이에 아주 친밀한 결합의 예술가곡을 만들었다. 강만희, **간추린 19세기 낭만음악사**, 대전: 예광, 2005, p. 61~62

피리케(Eduard Fredrech Mörike, 1804~1875), 쉴러(Fredrech von Schiller, 1797~1805) 등의 낭만주의 시인들이 배출되면서 전성기를 이루었다.<sup>2)</sup>

시문학의 발전으로 서정적이고 아름다운 시들이 탄생되었고, 이러한 시문학은 동시대 작곡가들의 다양한 창작 욕구를 일으키기에 충분했다.

이렇게 발전된 예술가곡은 슈베르트(Franz Peter Schubert, 1797~1828)에 이르러 확고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는데 슈베르트의 가곡은 창작분야에서 거의 혁명에 가까웠고, 19세기 후세대 작곡가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

슈베르트는 단순히 시에 가락을 붙여 부르는 것만이 아니라 피아노 반주에 의해 시의 내용을 따라 보다 깊은 감정을 넘치게 함으로써 시와 음악이 긴밀하게 융합되어 표현되는 예술가곡을 작곡했다.<sup>3)</sup> 또한 묘사적이고 색채감 있는 반주부를 사용하여 단순한 화음만을 울리는 것이 아닌 시 전체의 분위기를 반주로 표현하고자 하였다. 그의 천재적 재능이 돋보이는 선율은 다양하며 그 아름다움은 극에 달한다.

슈만(Robert Schumann, 1810~1856)은 리트에서 반주부를 강조하여 성악 라인에 동등한 파트너로 승격시켰으며 성악성부와 피아노가 듀엣(duet)에 이르는 수준으로까지 발전시켰다. 이후 독일가곡은 내면에는 낭만적 감정을 담고 있었으나 고전적 정신을 계승하려 한 브람스(Johannes Brahms, 1833~1897)로 이어진다. 그의 작품은 자연이나 인간의 애정을 소재로 하며 민요풍에 의한 서정적인 곡들이 많다. 브람스 이후 독일 가곡은 예술가곡에 전 생애를 바친 작곡가로 리트에 있어서의 가사와 음악과의 관계에 새로운 개념을 보여준 볼프(Hugo Wolf, 1860~1903), 자신의 교향곡과 예술가곡의 연관성을 가진 말러(Gustav Mahler, 1860~1911), 색채감 있는 가곡을 쓴 슈트라우스(Richard G. Strauss 1864~1949) 에 이어지며 아름다움을 더해 갔다.

---

2) Ibid. p. 62~65

3) 1814년 슈베르트는 괴테의 시에 붙인 가곡 ‘물레жат는 그레첸(Gretchen am spinnarde)’ 을 작곡하는데 독일 가곡 사상, 이 가곡을 ‘낭만파 예술가곡의 시작’이라 부른다.

그 중에서도 슈만은 낭만주의 작곡가중 가장 이상적인 Lied 작곡가이다.

그는 작곡가 이전에 피아니스트였으며 문학적 재능이 뛰어난 평론가이며, 또한 작곡에 있어 가장 창조적인 재능을 보여 예술가곡의 위치를 더욱 예술적으로 확대시키고 발전시켰다. 슈만은 가곡 중에서도 시인, 주제, 분위기, 조의 관계에 따라 연가곡<sup>4)</sup>을 많이 작곡했는데 ‘Liderkreis, op. 24’는 피아노곡에서 가곡 작품으로 전환한 최초의 작품이다. 초기 작품이기 때문에 중기나 후기에 보여 지는 슈만 특유의 가곡 양식을 포괄하지는 않지만 이 작품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질 연가곡들의 흐름을 읽을 수 있다.

본 논문은 ‘Liderkreis, op. 24’의 분석을 통하여 슈만의 작품 세계를 폭넓게 이해하는 작업이다. 본론에서는 슈만의 가곡의 특징들에 대해 조명해보고 작시자 하이네와 하이네 시에 의한 슈만의 작품을 살펴보았다. 또한 시의 원문과 번역, 분석을 통해 시와 반주와의 상호 관계성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시의 내용과 분위기에 따른 효과적인 반주법을 심도 깊게 연구하고자 한다. 도표를 이용하여 각곡의 구조를 살펴보고 조성의 변화, 아티큘레이션, 악상 프레이즈 등의 요소를 살펴 가사를 중심으로 반주와의 연관성을 고찰하고자 한다.

분석에 사용된 악보는 ‘Robert Schumann Lieder Band II’ Peters Edition(Ausgabefür hohe stimme)이다.

---

4) 연가곡이란, 악기의 반주가 있거나 혹은 반주가 없는 독창이나 앙상블을 위한 독립적인 노래들의 한 그룹으로 된 성악 음악 형식으로, 일련의 사건들 또는 일련의 인상들에 의해 관계되거나 또는 분위기로 통일성을 준 노래의 한 그룹을 말한다.

## II. 이론적 배경

### 1. 슈만의 가곡

슈베르트 음악의 전통을 계승 발전시킨 슈만은 낭만주의 전성기의 피아노 가곡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한 작곡가이다.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슈만 가곡의 대다수는 1840년에 탄생한 것들이다.

클라라 (Clara Josephine Schumann, 1819~1896)와 결혼을 하던 해인 1840년은 슈만의 창작활동의 하나의 전환기가 되는데, 「노래의 해」라고 알려진 이해에 슈만은 클라라와의 사랑의 기쁨을 이야기하듯이 140여곡의 가곡들을 작곡한다.

그의 모든 가곡의 1/3정도의 작품이 이 1년 동안에 만들어진 것이며, 걸작이라고 평가받는 대부분의 작품이 이 시기의 작품들이다.<sup>5)</sup>

노래의 해인 1840년에 작곡된 가곡들을 도표로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표1>

---

5) 음악세계 옮김, **명곡해설 라이브러리-슈만**, vol. 14, 서울: 음악세계, 2002, p. 288

〈표1〉 ‘노래의 해’에 작곡된 슈만의 가곡들

작품 번호	곡명	곡수	작시자
24	Liederkreis	9	Heine
25	Myrten	26	Rückert, Goethe, Mosen, Heine, Burns, Byron, Moore
27	Lieder und Gesänge I	5	Hebbel, Burns, Chamisso, Rückert,
30	Drei Gedichte	3	Geibel
31	Drei Gesäng	3	Chamisso
35	Zwölf Gedichte	12	Kerner
36	Sechs Gedichte	6	Reinick
37	Zwölf Gedichte "Lieberfrühling"	12	Rückert
39	Liederkreis	12	Eichendorff
40	Fünf Lieder	5	Chamisso, Andersen
42	Frauenliebe und Leben	8	Chamisso,
45	Romanzen und Balladen I	3	Eichendorff, Heine
48	Dichterliebe	16	Heine
49	Romanzen und Balladen II	3	Heine, Fröhlich
53	Romanzen und Balladen III	3	Seidl, Lorenz, Heine
57	Belsazar		Heine

슈만은 1840년에 특히 연가곡을 많이 작곡하였는데, <하이네의 시에 붙인 리더크라이스 (Liederkreis von H. Heine Op.24)>, <미르테의 꽃 (Myrten Op.25)>, <아이헨도르프에 따른 리더크라이스 (Liederkreis nach Eichendorff Op.39)>, <케르너의 시에 붙인 12가곡 (12 Gedicht von J. Kerner Op.35)>, <여인의 사랑과 생애 (Frauenliebe und Leben Op.42)>, <시인의 사랑 (Dichterliebe Op.48)> 등의 연가곡이 이때에 만들어진 곡들이다. 그 중에서 하이네의 <서정적 간주곡> 에서 16편의 시를 발췌하여 곡을 붙인 <시인의 사랑> 은 슈만의 가장 대표작품일 뿐 아니라 역대 가곡 중에서 “사랑을 주제로 한 최고의 작품”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sup>6)</sup>

슈만은 리트 작곡 제 2기에 해당하는 1850년을 전후하여 다시 일련의 가곡들은 양산하는데 이 시기의 가곡들은 <노래의 해>인 1840년의 곡들과는 다른 철학적인 사상과 심오함이 그 특징이다. 교향곡과 실내악을 통해 이루어진 큰 스케일과 정신병의 영향으로 보다 깊은 내적 세계의 확대와 침체가 나타나는 작품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sup>7)</sup> 깊은 낭만성을 보이는 <레나우의 6개의 시와 레퀴엠 (Sechs Gedichte von Lenau und Requiem) Op.90>, <빌헬름 마이스터에 의한 가곡집 (Liederyaus Goethe's Wilhelm Meister) Op.98>, <마리아 스튜어트여왕의 시에 의한 5개의 가곡 (Gedichte der Königin Maria Stuart) Op.135>과 단순한 명석함이 보이는 <어린이를 위한 노래의 앨범 (Lieder-Album für die Jugend) Op.79>를 대표작품으로 들 수 있다. 드레스덴 시기 후기에는 <스페인의 리더슈piel (Spanisches Liederspiel) Op.74>로 대표되는 중창, 파트송 종류의 곡들도 많이 만들어졌다.<sup>8)</sup>

슈만 가곡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목소리와 피아노 사이의 밀접한 관계이며, 또 다른 특성으로는 시와 음악의 밀접한 관계라 할 수 있다.

6) 김용환, **음악세계 서양음악사.19세기 음악**, 서울: 2005, p. 269

7) 음악세계 옮김, **명곡해설 라이브러리-슈만** ibid. p. 16~17

8) Ibid. p. 289

## 1) 가사(시)의 특징

책 사업을 하던 부친의 영향으로 문학적 재능과 안목이 탁월했던 슈만은 가사를 선택함에 있어서도 매우 까다로웠다. 그의 폭넓은 문학적 관심은 다른 언어로 된 시를 번역하여 재사용하기도 하고 잘 알려지지 않은 시인의 시들도 사용하였다.<sup>9)</sup>

가사들은 주로 서정적이며 회화적인 묘사를 많이 사용하였다. 슈만은 하이네, 뤼케르트 (Rückert Friedrich, 1788~1866), 괴테, 아이헨도르프, 샬미소 (Adelbert von Chamisso, 1781~1838), 레나우 (Nikolaus Lenau, 1802~1850), 케르너 (Justinus Andreas Christian Kerner, 1786~1862), 번즈 (Burns, Robert, 1759~1796) 등의 격조 있는 낭만주의 시인들의 작품을 선호하였는데, 하이네의 온화하고 풍자적 시구, 뤼케르트의 낭만주의, 아이헨도르프의 자연시, 번즈의 민족성이 깃든 시들은 슈만의 가곡적 영감에 큰 영향을 준다. 그 중에서 슈만의 선호도에 있어 최고의 위치를 차지한 시인은 하이네이다. <sup>10)</sup>

조직하기를 좋아하는 그의 강한 욕구를 반영하듯 슈만의 곡의 많은 곡들은 연가곡이나 모음집으로 한 시인의 작품들로 구성되어 있다. 예민함과 정리정돈에 대한 집착은 그의 가곡과 연가곡에서도 나타나는데 조성관계의 세밀한 정렬, 음악적 동기에 의한 연결, 특별한 의미를 음악에 부여한 점 등이 이를 말해 준다.<sup>11)</sup>

---

9) Carol Kimball, *Song*(하), 채은희 역, 서울: 도서출판 형설, 2004, p. 92

10) 김용환 *ibid.* p.271

11) Carol Kimball *ibid.*

## 2) 피아노 반주의 특징

슈베르트의 가곡에서 볼 수 있는 다양한 반주부의 표현들은 가곡 반주 역사의 시작이며 이러한 반주의 끊임없는 독립적 변화는 슈만에 이르러 더욱 더 그 화려함을 보여준다. 노래 선율과 반주와의 관계는 더 이상 분리시켜 생각할 수 없게 된 것이다.<sup>12)</sup>

슈베르트는 반주에 있어 시와 음악의 융합을 이루어내는 새로운 형식을 확립하였으나 항상 고전적 특징을 유지하고 있는데 반해, 슈만은 섬세한 감정과 시적인 예술성을 통해 서정적이며 아름다운 곡들을 많이 작곡함으로써 낭만예술가곡을 절정에까지 끌어올렸다.

슈만은 좋은 가곡이란 단순히 피아노를 통해서 성악부를 배가 시키는 것이 아니라 피아노와 성악. 두 성부 간의 협력을 드러내는 것이라는 사실을 이해하고 있었다.

슈만가곡의 멜로디는 슈베르트와 같이 다양함을 보이고 있는데, 민요곡조의 단순함을 갖고 있는 곡부터 대담하게 비약하는 멜로디를 사용하는 곡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또한 당김음을 사용하여 리듬과 화성에 독특한 개성을 부가시키기도 하고 섬세한 리듬과 색채감 있는 화성 기법 등으로 낭만적인 면을 고조시키며, 예리한 감수성으로 선율과 화성을 조화시켰다. <sup>13)</sup>

슈만은 화성적 어휘가 확대되어 나타나는 반음계적 진행, 변화화음, 비화성음의 자유로운 사용, 이명동음의 사용으로 인한 조성의 불명료함과 모호성으로 낭만주의적 색채를 묘사하였는데 이러한 특징들을 통해 슈만은 낭만주의 슈베르트가 확립한 예술가곡 분야의 입지를 더욱 예술적으로 확대시키고 발전시켰다. 슈만은 피아노 반주의 위상을 처음으로 성악과 동등한 위치로까지 격상시키었다. 그는 가곡에서 피아노의 중요성을 더욱 부각시키

---

12) 강만희. op. cit. p.63

13) 조혜진, Robert Schumann 의 「Liederkreis Op.24」 에 관한 연구, 동덕여대 대학원, 2002, p. 11

어 피아노를 단지 반주악기로 다루지 않았다. 주요 멜로디를 때로는 반주가 담당하기도 하고 다양한 형태의 패턴과 스타일로 반주를 풍부하게 구사하여 피아노 작곡가의 대가적인 면모를 반영한다.<sup>14)</sup>

대부분의 가곡에서 전주, 간주, 후주들은 절대적인 요소들로 보다 확장된 모습을 보인다. 반주는 가사묘사에서 중요한 서술적인 형태를 보이게 되며, 색채적인 효과를 나타내기도 하며, 피아노의 후주의 역할을 부각시킨다. 반주부의 전주, 간주, 후주에 각각의 기능을 부여하되 후주에 전체적인 비중을 두어 피아노에게 노래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해설하며 곡을 마치게 하는 독특한 수법을 구사하여 시의 여운을 지속시키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피아노가 더욱 비중을 가져 노래를 리드하기도 해 이중주와 같은 느낌이 들게 하기도하고<sup>15)</sup> 때로는 ‘성악 성부가 붙은 피아노 소품 (Klavierstück mit Singstimme)’과 같은 느낌이 드는 곡들도 있다. <sup>16)</sup>

---

14) 강만희, op. cit. p. 63

15) 대표적인 예로 ‘호도나무(Der Nussbaum)’에서는 성악이 구의 선율을 시작하고 피아노가 이를 완성시킨다. 또한 성악과 피아노의 완벽한 결합의 좋은 예는 가곡집 ‘리더크라이스’ Op39의 제 5번 ‘달밤(Mondnacht)’을 들 수 있다.

16) 김용환, op. cit. p.269

## 2 하이네와 시

### 1) 하이네 (Heine, Heinrich, 1797~1856)

독일 낭만주의의 리트(Lied)는 하이네와 밀접한 연결성을 가지도 있는데, 괴테를 제외한 어떠한 독일 시인도 이 분야에 하이네만큼 큰 반향을 일으킨 시인은 없다. 이는 ‘노래의 책’에 실린 많은 시들이 슈베르트, 슈만, 멘델스존(Jakob Ludwig Felix Mendelssohn - Bartholdy, 1809~1847), 브람스 등의 많은 작곡가들에 의해 작곡된 데 덕을 입은 것이라 할 수 있겠다.<sup>17)</sup>

1797년 독일 라인 강변의 뒤셀도르프에서 유대인 상인집안의 장남으로 태어난 하이네는 고등학교 졸업 후 상인이 되기 위한 훈련을 받았지만 상인으로서의 그의 무능력 때문에 6개월 만에 파산하고 본 대학에 수학하였다. 그 이후 괴팅겐과 베를린 대학에서 공부하며 낭만주의 작가 푸케(Nicolas Fouquet, 1615~1680), 샤미소, 호프만(Hoffmann, Ernst Theodor Amadeus 1776~1822)과 교류하였다. 1830년 프랑스의 7월 혁명 이후 프랑스로 망명한 하이네는 독일의 철학, 문화, 종교를 소개하는데 힘쓰고 위고(Victor-Marie Hugo, 1802~1885), 발자크(Jean-Louis Guez de Balzac, 1594~1654), 조르주 상드(George Sand 1804~1876) 등 프랑스 문단의 거장들과도 친분을 쌓았다. 1856년 1월 파리에서 척추결핵으로 숨을 거두기 전까지 그는 병마와 싸우면서도 구술을 통한 시 창작을 멈추지 않았다.<sup>18)</sup>

그는 낭만주의와 고전주의의 전통을 잇는 서정시인인 동시에 한편으로는 반정통적, 혁명적 저널리스트였던 하이네는 정치적, 종교적으로 자유롭지 못하고 시대에 뒤떨어진 독일의 현실을 한탄하며 개인의 언론사상의 자유, 여성해방 등을 부르짖었다. 그의 문학세계는 문학을 통해 현실을 비판

---

17) Heine Heinrich, *Buch der Lieder*, 김재혁 옮김, 서울: 문학과 지성사, 2001, p. 338

18) Ibid. p. 349~358

하면서도 예술이 갖는 자율성을 수호하려는데 핵심이 있다. 그의 대표작품으로는 <바허라흐의 나비 (Rabbi von Bacherach)>, <33편의 시 (Dreiunddreißig Gedichte)>, <여행화첩 (Reisebilder)>, <노래의 책 (Buch der Lieder)>, <독일. 겨울동화 (Deutschland. Ein Wintermärchen)>, <신시집 (Neue Gedichte)>, <로만체로 (Romanzero)> 등이 있다.<sup>19)</sup>

1827년 출판된 <노래의 책>은 하이네의 첫 시집이자 시인으로서의 하이네의 명성을 확고하게 해 준 시집이기도 하다. 이 책은 그의 시작활동 이후 1826년까지 쓰여진 중요시들이 총망라 되어있는데, 이 시집의 아주 특징적인 성격으로는 이성간의 사랑에 대한 집중된,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된 주제를 들 수 있다. 하이네 자신도 칼 Immermann (Karl Immermann)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 시집에 실린 모든 시들이 “동일한, 조그마한 테마의 변주곡들일 뿐”이라고 고백한 바가 있다. 하이네 역시 이 시집의 특징으로 주제의 단조로움과 무수한 단조로운 주제에 대한 변형을 특징으로 꼽은 것이다.<sup>20)</sup>

수록된 시집의 시들은 거의 전부가 직. 간접적으로 사랑을 모두 ‘불행한 사랑’이라는 중심테마와 연결 되어있다. 그가 젊은 시절의 시에서 사랑의 고통을 주제화한 배경에는 사촌누이인 아말리에 (Amalie)에 대한 불행한 사랑의 체험이 자리한다. 아말리에에 대한 사랑과 실연은 하이네의 순수한 사랑에의 동경을 현실에 대한 환멸로 바뀌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지만, 시를 통해서 사랑의 신비로움과 아름다움을 노래하는 직접적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sup>21)</sup>

하이네는 이 시집에서 아주 새로운 시의 형식을 시험하고 있는데, 전통적인 서정시의 틀에서 완전히 벗어난 민요풍의 형식이 대거 도입되었고, 기교와 형식 그리고 서정적 자아의 기본자세 등 모든 면이 괴테의 ‘체험시’

---

19) Ibid

20) 김수용, 하이네 (예술과 참여의 끝없는 물음). 서울: 건국대학교 출판부, 1997, p. 41

21) Heine Heinrich ibid. p. 340

및 낭만주의 서정시의 전통세기 벗어난 독자적인 영역으로 구축된다. 이러한 점에서 그는 독일 현대시의 창시자로 불리고 있다.<sup>22)</sup> <표2>

<표2> 노래의 책 목차

1부	젊은날의 아픔 Junge Leiden	1817~1821년
	(1)꿈속의 모습들 Traumbilder (10편)	
	<b>(2)노래들 Lieder (9편)</b>	
	(3)로만체 Romanzen (20편)	
	(4)소네트 Sonette (4편)	
2부	서정적 간주곡 Lyrisches Intermezzo(65편)	1822~1823년
3부	귀향 Die Heimkehr (88편)	1823~1824년
4부	하르츠 기행에서 Aus der Harzreise	1824년
5부	북해 Die Nordsee	1825~1826년

22) 김수용, *ibid.* p. 16

## 2) 슈만과 하이네

슈만이 많은 시인들 가운데서 가장 선호했던 시인은 하이네이다. 사랑에 관한한 누구보다도 큰 가슴앓이를 한 슈만은 하이네에서 동변상련의 자신을 발견하고 많은 고뇌와 기쁨을 느낀 듯 하이네의 시 41곡에다 곡들 붙여 자신의 음악과 융합시킨다.

슈만은 라이프치히 대학에서 연구를 시작하던 1829년 5월 친구 로젠(Losen Gisbert, 1818~1876)과의 남쪽 여행길에서 화학자 쿠러(Kurrer)의 추천장을 받아 뮌헨(München)을 방문한 하이네와 만나게 된다. 하이네와의 직접적인 교류는 슈만의 음악에서도 지속된다. 그는 하이네의 텍스트에 몰두하면서 의도적인 과장에서 감정의 몰입에 이르기까지 하이네의 시가 음악정신으로 새롭게 나타나게 하였고, 하이네의 서정시가 가진 특징인 뉘앙스, 즐거움과 우울사이의 몽상, 분산된 감정, 불투명한 언어회화 등을 주의 깊게 탐색했다. 슈만의 개성인 독특한 가곡 양식은 하이네의 이러한 특성들에 힘입은 것이라 할 수 있겠다.<sup>23)</sup>

하이네 시에 의한 슈만 가곡은 <시인의 사랑 op.48>, <리더크라이스 op.24>, <미르테의꽃 op.25>, <로망스와 발라드 제 1, 2, 3집 op.45, 49, 53>등 많은 곡들이 있다. <표3>

---

23) 박숙현, 슈만의 가곡 「Der arme peter」 Op.53의 분석연구, 동아대학교 대학원, 2007, p. 11

〈표3〉 하이네 시에 의한 슈만가곡 (총 41곡)

작품번호	곡명	곡수	작곡연도
24	Liederkreis	9	1840
25	Myrten	3	
33	Sehr Lieder	1	
45	Romanzen und Balladen I	1	
48	Dichterliebe	16	
49	Romanzen und Balladen II	2	
53	Romanzen und Balladen III	1	
57	Belsatzar	1	
64	Romanzen und BalladenIV	3	1841
127	Lieder und Gesänge	2	1850
142	Vier Gesänge	2	1852

### 3 . 리더크라이스 Op.24

슈만의 작품 중 〈가곡집〉으로 번역되고 있는 〈리더크라이스〉는 두 개가 있는데, 하이네 시에 의한 작품 24번과 아이헨도르프의 시에 의한 작품 39가 그것이다. 이전까지는 주로 피아노곡에 집중했던 슈만은 1840에 작곡에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는데, 한 해전만 해도 성악작품이 기악작품보다 열등하다고 이야기하곤 하던 슈만이 이렇게 가곡작업에 몰입하게 된 이유에 대해 많은 이들이 클라라와의 사랑 때문이라고 이야기한다. 오랜 시련 끝에 클라라와 결혼을 하게 된 슈만은 비로소 행복감을 느끼게 되고 가곡을 통해 사랑을 표현하게 되는 것이다. 리더크라이스 Op.24는 슈만이 클라라 비크와 결혼하기 몇 달 전인 1840년 2월에 작곡된 작품이다. 하이네의 <노래의 책 (Buch der Lieder)>에서 ‘젊은날의 아픔들’중 ‘노래들’ 연시 9개에 곡을 붙였으며 슈만이 피아노 음악에서 가곡분야로 옮겨간 초기의 작품이다.<sup>24)</sup>

슈만은 이 시기에 클라라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 가곡집에 대해 이렇게 쓰고 있다.

“그 가곡(Op.24)들은 내가 처음으로 발표한 곡이니 너무 혹독하게 비평하지는 말아주오. 그 가곡들을 작곡할 때 나는 당신을 생각하고 있었소. 낭만적인 여인이여 당신의 두 눈은 나를 매혹한다오. 그래서 나는 당신 같은 약혼자 없이는 어느 누구도 이런 곡을 작곡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오”<sup>25)</sup>

슈만의 리더크라이스 Op.24는 이렇듯이 클라라에 대한 깊은 사랑의 감정 속에서 태어난 작품이라 할 수 있겠다.

젊은 시절 여행 중 뮌헨에서 하이네를 만났던 슈만은 존경하던 시인이었

24) 음악세계 옮김, **명곡해설 라이브러리-슈만** op. cit. p.290

25) Lorraine Gorrell, op. cit. p. 163

던 하이네가 냉담히 대한 것에 상처 입었던 적이 있었는데, 청년시절 상처 입은 자존심을 보상받기 위해 슈만은 리더크라이스 Op.24를 완성한 즉시 친구인 프리드리히 리스트 (Friedrich Liszt, 1789~1846)를 통해 파리에 살고 있는 하이네에게 사본을 전달했다고 한다.

리더크라이스에 사용된 시는 하이네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젊은 날의 아픔’을 다루고 있는데, 이는 특히 사랑에 실연당한 젊은이의 고뇌와 번민이 잘 녹아들어있다. 전체적인 노래 풍은 슈베르트 만년이전 가곡과 이탈리아 가곡의 영향이 뚜렷하여 민요풍의 성격을 띠고 있다. 이 곡은 당시의 훌륭한 가수이며 나중에 슈만 가곡의 이해자가 된 파울리네 가르치아 (Pauline Garcia, 1821~1910)에게 헌정된다.<sup>26)</sup>

---

26)음악세계 옮김, **명곡해설 라이브러리-슈만** ibid. p. 290

### Ⅲ. 작 품 분 석

#### 리더크라이스 Op.24의 분석연구

##### 1) Morgens steh ich auf und frage (아침에 일어나면 나는 물네)

###### (1) 가사의 원문 및 번역

Morgens steh ich auf und frage:	아침에 일어나면 나는 물네:
kommt feins Liebchen heut?	오늘은 사랑스런 애인이 찾아올까?
Abends sink ich hin und klage:	저녁이면 나는 쓰러져 한탄하지:
aus blieb sie auch heut.	오늘도 그녀는 오지 않았다고.

In der Nacht mit meinem Kummer	밤이면 나는 고통 속에
lieg ich schlaflos, lieg ich wach;	잠 못 이뤄 깨어서 밤을 지새고;
träumend wie im halben Schlummer,	낮이 되면 반쯤은 잠이 들어
träumend wandle ich bei Tag.	꿈꾸듯이 방황한다네.

###### (2) 악곡분석

아침부터 밤까지 사랑에 괴로워하는 젊은이의 심리를 간결하게 묘사한 시에 곡을 붙인 이 곡은 두 부분으로 된 통절 형식<sup>27)</sup>의 곡이다.

---

27) 슈만은 시의 내용에 따라 가사는 매번 바뀌어도 선율은 그대로 반복되는 유절형식(strophic form), 시의 흐름에 밀착하여 자유롭게 음악을 붙이는 통절 형식(trough-composed form), 같은 선율과 반주가 반복되지만 각 연에서 약간의 변형이 있는 변형 유절형식(modified strophic form)을 사용하였다.

미묘한 조바꿈과 리타르단도로 젊은이의 의문과 고민, 꿈결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다. 이 곡의 구성을 도표화하면 다음과 같다. <표 4>

<표 4> 제 1곡 Morgens steh ich auf und frage 의 구성

빠르기	박자	구성	마디		조성
Allegretto	2/4박자	A	전주	1~4	D
			a	5~12	D
			b	13~20	f#
		B	c	21~28	e→G
			d	29~36	D
			후주	37~45	D

한 젊은이가 사랑으로 인해 아침부터 저녁까지 괴로워하는 심리를 묘사한 제 1곡은 4마디의 전주로 시작한다. 사랑하는 애인을 기다리는 젊은이의 초조하고 불안한 마음을 두근거리는 심장박동을 연상하며 약간의 흥분된 마음을 담아 왼손과 오른손의 주고받는 리듬을 살려 여린 스타카토로 표현한다. 오른손의 상행진행에 왼손은 반 진행으로 하행하고 있는데 이는 젊은이의 기대감이 점점 커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자연스러운 < >를 긴 한 호흡으로 처리하면서 기대감이 커지지만 자제하는 젊은이의 심리를 표현한다. (악보 1)

(악보 1) 제 1마디~제 4마디 (전주)

성악성부가 연결되는 제 5마디부터는 전주의 동요되고 흥분되는 느낌을 간직한 채 왼손의 베이스라인은 그대로 지켜 연주하고 오른손은 노래선율의 메아리 느낌으로 반 박자 뒤에서 마치 여운처럼 성악성부에 얹혀 지게 조금 여리게 표현해준다.

제 9마디부터는 ‘frage(질문)’의 구체적인 내용이므로 반주부도 화음으로 처리 하여 앞보다 구체화 시켜주고 있다.

9마디의 rit.와 성악부의  $\ll \gg$ 는 ‘kommt feins Liebchen heut’?(사랑스런 애인이 올까요?)’의 기대감을 나타내므로 노래부와 반주부가 일치된 감정으로 표현해주도록 한다.

제 11마디부터 제 12마디까지는 오른손의 마지막 약박에 악센트가 나오는데 이는 오지 않으리라는 암시를 나타내 주는 반어법적 표현의 복선장치로 볼 수 있다. 제11마디 2박에 D장조의 부속화음인  $vii_7/V$ 를 사용하여 제 12마디 2박에서  $f^\#$ 단조로 전조되어지므로 화성의 음색에 귀를 기울이고, 마지막 8분음표의 악센트를 통해 전조가 강조되어 다음과 연결되어지게 한다. (악보2)

(악보 2) 제 5마디~제 12마디

“아침에 일어나면 나는 물네:  
오늘은 사랑스런 애인이 찾아올까?”

5 *p*  
Mor - gens steh ich auf und fra - ge:  
9 *rit.*  
kommt feins Lieb - chen heut?  
9 *rit.*

D ; V vii<sup>o</sup><sub>7</sub>/V V V<sub>3</sub><sup>4</sup>/f<sup>#</sup>

제 13마디부터 제 20마디까지는 시간의 배경이 아침에서 저녁으로 옮겨가며, 조성 또한 D장조에서 f<sup>#</sup>단조로 변화 하였다. 이는 오늘도 그녀가 오지 않았음에 탄식하며 원망하는 젊은이의 심리를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제 16마디의 ‘klage (비탄, 한탄)’ 에서도 반음 하행함으로써 한탄하며 실망한 느낌을 전달한다. 제 18마디~제 19마디의 ‘auch heut (오늘도 역시)’ 를 노래 부를 때 반주의 왼손라인이 8도 하향하는데, 이는 마치 깊은 절망감으로 빠지는 듯 표현해 주고 성악가는 제19마디에서 ‘auch heut’ 를 한번 더 반복함으로써 더욱더 커진 절망감을 표출한다.

제 17마디~제 20마디는 젊은이의 실망한 심리상태를 묘사하는 부분이므로 앞의 음색과는 다른 톤으로 노래할 필요가 있다.

제 9마디의 rit.가 사랑하는 이에 대한 기대감의 상징이었다면 제19마디의 rit.는 그녀가 오지 않았음에 실망하는 감정이 증폭되는 효과를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반주부는 18마디를 p로 시작하여 폭넓게 다이내믹을 표현해 주어 성악부의 절망스런 감정이 커지는 느낌과 함께 가도록 한다. 제10마디에서 성악부가 < >를 통해 곡을 이끌었다면 제 18마디~제19마디에서는 반주부의 < >가 다이내믹을 이끌고 있다. (악보 3)

(악보 3) 제 13마디~제 20마디

"저녁이면 나는 쓰러져 한탄하지:  
오늘도 그녀는 오지 않았다고."

f# ; i<sub>4</sub><sup>6</sup> V i iv i<sub>4</sub><sup>6</sup> V<sub>7</sub> i

지금까지의 형태와는 다르게 제 21마디부터는 못갓춘마디로 시작한다. 제 21마디에서는 부속화음인  $vii_2^{\circ 4}/IV$ 를 사용하여 e단조로 전조되고 있고, 부점 리듬과 당김음 리듬을 사용하여 사랑하는 애인이 오지 않아 고통 속에 잠 못 이루며 깨어 밤을 지새는 젊은이의 불안하고 근심하는 심리상태를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제 24마디의 ‘kummer(슬픔, 비애)’에서는 반주부 왼손의 베이스가 E음까지 내려감으로써 근심하는 모습을 더욱 강조해 주고, 제 25마디부터 성악 선율은 계속 상승하면서 슬픔이 더욱 고조되는 젊은이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악보 4)

(악보 4) 제 21마디~제 28마디

“밤이면 나는 고통 속에  
잠 못 이뤄 깨어서 밤을 지새고;”

$vii_2^{\circ 4}/iv \quad V_5^6/e ; \quad i - 6 \quad ii_6 \quad V \quad i - G;vi^-$

제 29마디~제 32마디는 ‘träumend (꿈꾸는듯)’의 가사의 분위기에 맞게 마치 잠에 취해 몽롱히 움직이듯이 템포 안에서 연주한다. 제 29마디~제 32마디에서는  $vii^{\circ}_5$ 화성의 반복적인 사용과 성악성부에서 완전 4도 도약하는 당김음 리듬을 사용함으로써 젊은이의 불안하고 원망스런 마음을 고조시켜 표현하고 있다. 성악부의 슬러는 피곤한 듯 밑에서 끌어올리며 표현 해주며, 제 32마디의 rit.는 밤새 깨어 기다리는 젊은이의 마음과 기대감을 갖고 페르마타의 느낌으로 조금 끌어준다. 이후 성악부와 같이 호흡한 후 제 33마디에서 본래의 빠르기로 연주하도록 한다.(악보 5)

(악보 5)제 29마디~제 36마디

“낮이 되면 반쯤은 잠이 들어  
꿈꾸듯이 방황한다네.”

D ;  $vii^{\circ}_5$   $IV_4^6$   $vii^{\circ}$   $IV_4^6$   $vii^{\circ}_5$   $IV_4^6$   $vii^{\circ}_5$   $vii^{\circ}_3/IV$

후주가 시작되는 제 36마디부터는 앞에 보았던 약박의 악센트들이 다시 나타나고 있다. 앞서 그녀가 오지 않으리라는 암시가 구체화 되는 부분으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에 대한 실망감이 강조 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후주 부분에서는 앞보다 악센트를 더욱 강조하여 표현해 주도록 한다.

제 43마디~제 45마디에서는 부속화음인  $V_7/V$  과 rit.의 사용으로 완전히 가지지 않은 근심을 남기듯 표현하였다. 오른손의 레가토라인과 당김음 리듬을 충분히 여유롭게 노래하며 rit.해줌으로써 해결되지 못한 궁금증을 남기듯이 끝맺는다.(악보 6)

(악보 6) 제 36~제 45마디(후주)

D ;  $ii_5^6$   $V_7$   $V_5^6/V$   $vi$   $ii$   $V_7/V$   $V_7$  I

## 2) Es treibt mich hin (나는 초조하여)

### (1) 가사의 원문 및 번역

Es treibt mich hin, es treibt mich her!	나는 초조하여 안절부절 못하네!
Nach wenigen Stunden dann soll ich sie schauen	잠시 후에 난 그녀를 보게 되겠지.
sie selber, die schönste Jungfrauen.	아름다운 여자들 중 가장 아름다운 그녀를.
Du armes Herz, was pochst du schwer?	가여운 심장이, 어찌 그리 강하게 고동치는가?
Die Stunden sind aber ein faules Volk!	시간은 게으른 녀석이라네.
Schleppen sich behaglich träge,	천하태평으로 게으르게 발을 질질 끌며
schleichen gähmend ihre Wege;	늘어지게 하품하며 제 길을 기어오구나
trummle dich, du faules Volk!	서둘러라, 이 게으름뱅이야!
Tobende Eile mich treibend erfaßt!	미칠 듯한 조급함이 나를 사로잡는구나!
Aber wohl niemals liebten die Horen:	그러나 시간의 여신들은 한 번도 사랑을 해보지 않았나봐
heimlich im grausamen Bunde verschworen,	그들은 저희들끼리 은밀히 결탁하여,
spotten sie tückisch der Liebenden Hast.	사랑하는 사람의 조급함을 음험하게 조롱한다.

(2) 악곡분석

이 곡은 사랑스럽고 그리운 아가씨를 처음 만나는 젊은이의 초조한 심경을 묘사한곡이다. 총 74마디 세 부분 통절 형식의 곡이며, 페르마타와 리타르단도(rit.)의 빈번한 사용으로 격렬하고 정열적인 분위기를 효과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이 곡의 구성을 도표화하면 다음과 같다. <표 5>

<표 5> 제 2곡 Er treibt mich hin 의 구성

빠르기	박자	구성	마디		조성
Sehr rasch	3/8박자	A	전주	1~4	b
			a	4~17	b→F <sup>#</sup>
		B	간주	17~21	b
			b	21~41	b→G→e→b
		C	간주	41~45	b
			c	46~58	b→F <sup>#</sup>
			coda	59~66	b
			후주	66~74	b

이곡은 사랑스런 연인을 기다리는 젊은이의 초조하고 조급해지는 심정을 묘사하고 있다. 제 1곡의 전주에서 주고받는 리듬으로 심장의 두근거리는 마음을 표현했다면, 제 2곡에서는 4마디의 쉬지 않고 계속 전개되는 리듬을 통해서 그녀를 만나고 싶은 젊은이의 조급하고 서두르는 마음을 초조하고 강하게 나타내 주고 있다. 이런 주인공의 심정과 악상의 f를 잘 살려서 계속 몰아가는 느낌으로 이끌어주면서 성악부가 전주의 강한 느낌을 그대로 받아 나올 수 있도록 한다. (악보 7)

(악보7) 제 1마디~제 4마디(전주)

Sehr rasch 1

b ;            i 6        V<sub>4</sub><sup>6</sup>    i 6        V        i        iv        V

제 4마디에서 제 8마디까지는 전주부의 느낌을 그대로 성악부가 받아 가사로서 구체화 시켜주는데 ‘Er treibt mich **hin**, es treibt mich **her!** (나를 이리몰고 저리 모네)’의 가사처럼 멜로디라인 역시 진행되지 아니하며 초조하여 안절부절 못하는 심리 상태를 보여준다. 반주부의 왼손은 노래의 선율을 그대로 부르고 오른손은 반 박자 뒤에 노래를 뒤따르며 곡의 초조한 느낌을 더욱 살려주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피아노의 왼손은 성악부의 노래 안으로 들어가 흡수되도록 하고, 서두름을 표현하며 주도하는 리듬이 담긴 오른손을 좀 더 강조해 줌으로써 몰아가는 느낌이 들도록 해준다. (악보8)

(악보 8) 제 4마디~제 8마디

“나는 초조하여 안절부절 못하네!”  
(나를 이리 몰고, 저리모네!)

The musical score consists of two systems. The first system is the vocal line, written in a treble clef with a key signature of one sharp (F#) and a 2/4 time signature. It begins with a forte (*f*) dynamic and a staccato (*s*) marking. The melody is: G4 (quarter), A4 (quarter), B4 (quarter), A4 (quarter), G4 (quarter), F#4 (quarter), E4 (quarter), D4 (quarter). The lyrics are: "Es treibt mich hin, es treibt mich her!". The second system is the piano accompaniment, written in a grand staff (treble and bass clefs) with the same key signature and time signature. It begins with a piano (*p*) dynamic. The right hand plays chords: G4-B4 (quarter), A4-C#4 (quarter), B4-A4 (quarter), G4-F#4 (quarter), E4-D4 (quarter), C#4-B4 (quarter), B4-A4 (quarter), G4 (quarter). The left hand plays a steady bass line: G2 (quarter), F#2 (quarter), E2 (quarter), D2 (quarter), C#2 (quarter), B1 (quarter), A1 (quarter), G1 (quarter).

제 8마디의 셋째 박부터는 템포가 Langsamer로 바뀐다. 지금까지와는 달리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뀌는 부분으로, 성악부와 피아노가 함께 노래하고 있다. 제 14마디의 오른손진행에 왼손은 반진행하면서 제 15마디의 넓은 음역의 화음으로 이어지는데 이것은 ‘얼마 후에 보게 되는 그녀’를 부각시키기 위한 것이다.

제 15마디~제 17마디의 rit는 제 1곡의 9마디에서처럼 기대감과 희망의 상징으로 볼 수 있겠다. 긴 rit.와 작은 꾸밈음으로 ‘schönen Jungfrauen. (아름다운 여인)’을 강조하고 늘여주어 성악가가 충분히 노래 할 수 있도록 해주며, 여유로움과 따뜻함이 느껴지도록 성악가와 같이 호흡하며 연주하도록 한다. (악보 9)

(악보 9) 제 8마디~제 17마디

"잠시 후에 난 그녀를 보게 되겠지.  
아름다운 여자들 중 가장 아름다운 그녀를."

The musical score consists of two systems. The first system covers measures 8 to 12, and the second system covers measures 13 to 17. The vocal line is in G major and 4/4 time. The piano accompaniment features a steady bass line and chords that support the vocal melody. The tempo is marked 'langsam' (slow) and 'ritard.' (ritardando). The lyrics are in German and describe a woman who will be seen in the future.

9  
*langsam*

Nach we - ni - gen Stun - den dann soll ich sie schau - en, sie

13  
*ritard.*

sel - ber, die Schönste der schö - nen Jung - frau - en.

*ritard.*

제 17마디부터는 다시 전주와 동일한 간주 4마디가 이어지는데, 연약한 마음이 점점 더 강하게 고동치듯이 제 25마디의 페르마타를 향하여 *cresc.* 해주면서 젊은이의 조급하고 초조한 마음을 한번 더 강조해 준다. (악보10)

(악보 10) 제 17마디~제 25마디

"가여운 심장아,  
어찌 그리 강하게 고동치는가?"

18

*a tempo*

*f*

*p*

Du

22

ar - mes Herz, was Pochst du schwer?

제 26마디부터는 4마디 단위로 성악선율과 피아노 반주부가 마치 캐논(Canon)처럼 세 번에 걸친 동형진행을 통해  $b \rightarrow G \rightarrow e$ 로 전조되고 있으며 제 26마디~제 27마디에서 성악부는 8도 상행진행을 하고 있다. 가보았자 결국은 제자리로 돌아오는 듯 시간이 가지 않음을 표현해주는 부분이므로 무겁게 끌어올리면서 노래해주고, 반주부의 점 4분 음표는 시간의 정지를 의미하므로 멈춘 듯 쳐 주어야 한다. 제 28마디~제 29마디의 ‘faules Volk(게으른 녀석이라네)’에서는 마치 질질 끌려가듯이 불러준다. 8도 진행 후 더 오르지 못하고 3도아래로 떨어지고 있는데, 이는 가고 싶으나 못가는 마음을 나타낸다. 세 번의 동형진행의 시작부분을 조금씩 무겁게 쳐가면서 진행의 힘겨움과 가지 않는 답답한 마음을 효과적으로 표현하도록 해준다. 성악부의 음역이 상당히 낮으므로 오히려 반주부에서는 노래의 음역이 내려갈수록 피아노의 윗 선율을 강조해줌으로써 음향적으로도 잘 어울릴 수 있도록 연주한다.

제 31마디와 제 35마디에서는 선행음이 불임줄로 연결되어 억지로 끌려가는 느낌을 더해준다. 이를 효과적으로 나타내기 위해 끌려가듯 상행하는 8분 음표들을 조금씩 당겨서 쳐주어 마지못해 끌려가는 느낌을 살려주도록 한다.

제 38마디~제 41마디의 ‘trummle dich, du faules Volk!(서둘러라, 이 게으름뱅이야!)’에서는 시간이 가지 않음에 괴로워하여 재촉하는 듯 성악부와 같은 선율을 *cresc.*로 강하게 어필하며, 뒤이은

‘du faules Volk!(게으름뱅이)’의 가사의 의미를 느끼면서 반주부에 얽혀 노래되게 *rit.*로 표현한다. (악보11)

(악보 11) 제 26마디~제 41마디

"시간은 게으른 녀석이라네.  
천하태평으로 게으르게 발을 질질 끌며  
늘어지게 하품하며 제 길을 기어오구나;  
서둘러라 이 게으름뱅이야!"

30

Schlep pen sich be hag lich trä ge.

G; V I<sub>6</sub> V<sub>7</sub> I

34

schlei chen gäh nend ih re We ge:

e; V i<sub>6</sub> V<sub>7</sub> I

38

trumm le dich, du fau les Volk!

*ritard.*

b; VII° — — —

제 50마디~제 58마디에서는 성악성부는 작게 말하듯이 부르고 동일한 리듬으로 되어있는 화성적 반주는 Bass와 발란스를 맞춘다. 빈번히 사용되는 vii도 화성의 음색을 느끼면서 부딪치는 화음들을 강조해 주어 ‘시간의 여신이 사랑을 모르는 것’에 대한 답답한 마음을 표현하도록 한다. 제 54마디까지 약간의 rit.를 한 후 제 55마디부터 페르마타를 향해 한번 더 rit.하면서 의미를 다시 한번 강조해준다.(악보12)

(악보 12) 제 50마디~제 58마디

”그러나 시간(계절)의 여신들은  
한 번도 사랑을 해보지 않았나봐;”

F<sup>#</sup> ; V<sub>4</sub><sup>6</sup>                      vii<sub>3</sub><sup>4</sup>                      —                      vii<sub>2</sub><sup>4</sup>                      I<sub>4</sub><sup>6</sup>                      —

—                      vii<sub>3</sub><sup>4</sup>                      —                      V iv                      I<sub>4</sub><sup>6</sup>

제 59마디부터는 coda로서 새로운 흐름으로 진행된다. 각 마디 첫 박의 성악성부 음들이 순차적으로 상승하며, 액센트가 붙은 화성적 반주로 cresc.하면서 감정의 고조됨을 표현해준다.

59마디부터 네 마디는 앞서 나왔던 시간이 서있는 것을 묘사하는 부분으로 역시 무겁게 정지하듯 연주한다. 제 63마디부터는 사랑하는 사람의 조급함을 조롱하는 것에 대한 분노가 폭발하는 부분으로 성악부는 ‘spotten (조롱하다)’ ‘tückisch(음험하게)’ 를 강조하면서 복자음에 의한 단 모음을 강조하여 단어의 뉘앙스를 살리고 짧게 부른다. 반주부 역시 점 4분음표로 한마디로 지속 시켰던 소리를 짧은 점8분음표로 바꾸어 간결하게 처리하고, 절도 있게 가사의 표현을 돕도록 한다. (악보 13)

(악보 13) 제 59마디~제 66마디

"그들은 저희들끼리 은밀히 결탁하여,  
사랑하는 사람의 조급함을 음험하게 조롱한다."

59 *a tempo*

h e i m l i c h i m g r a u s a a m e n m e n B u n d e v e r - S c h w o r e n ,

63

s p o t - t e n s i e t ü c k i s c h d e r L i e - b e n - d e n H a s t .

*f*

*f*

*f*

*f*

*b* ;  $i_6$   $Vii^{\circ}_5$   $i_4^6$   $iv_6$

$iv$   $i_4^6$   $V_7$   $i$

후주가 시작되는 제 66마디부터는 악센트를 강조하여 붙임줄로 연결해줌으로써 시간에 끌려가는 느낌이 들게 연주하고, ‘나는 초조하나 시간이 가지 않음’에 대한 초조한 마음을 강조한다. 4~8마디의 ‘hin und her(여기저기)’의 느낌을 다시 표현하면서 조금해하는 마음을 담아 cresc.시켜 몰아치듯 연주하여 강한 화성과 스타카토로 힘있게 끝맺는다.(악보 14)

(악보 14) 제 66마디~제 74마디(후주)

The image shows a musical score for measures 66-74. It consists of two systems of piano accompaniment. The first system covers measures 66-70, and the second system covers measures 71-74. The key signature is one sharp (F#). The score includes treble and bass staves with notes, rests, and dynamic markings. Below the staves, chord symbols are provided for each measure.

Chord symbols for the first system (measures 66-70):  
 b ; V<sub>5</sub><sup>6</sup> i V<sub>2</sub><sup>4</sup> i<sub>6</sub>

Chord symbols for the second system (measures 71-74):  
 iv V<sub>5</sub><sup>6</sup>/iv i<sub>4</sub><sup>6</sup> V<sub>7</sub> i

### 3) Ich Wandelte unter den Bäumen (나는 나무들 밑을 서성였네)

#### (1) 가사의 원문 및 번역

Ich wandelte unter den Bäumen  
mit meinem Gram allein;  
da kam das alte Träumen,  
und schlich mir ins Herz hinein.

나는 나무들 밑을 서성였네.  
홀로 슬픔을 함께하며  
그 때 지난날의 꿈이 찾아와  
내 가슴 속으로 살그머니 파고들었네.

Wer hat euch dies Wörtlein gelehret,  
ihr Vöglein in luftiger Höh'?  
Schweigt still! wenn mein Herz es höret,  
dann tut es noch einmal so weh.

누가 너희에게 그 말을 가르쳐 주었니.  
하늘 높이 나는 작은 새들이?  
잠잠 하거라! 내 마음이 그 말을 들으면,  
또 다시 고통에 빠질 테니.

“Es kam ein Jungfräulein gegangen,  
die sang es immerfort,  
da haben wir Vöglein gefangen  
das hübsche, golden Wort.”

“한 소녀가 걸어가면서  
끊임없이 노래를 했네.  
그때 우리 새들이 들었네.  
그 예쁜, 황금색 말(言)을”

Das sollt ihr mir nicht erzählen,  
ihr Vöglein wunderschlau;  
ihr wollt meinen Kummer mir stehlen,  
ich aber niemandem trau.

나에게 더 이상 말하지 마라.  
지혜로운 작은 새들이;  
너희는 내게서 슬픔을 앗아가려 하지만,  
나는 다시는 아무도 믿지 않아. (위안을 받지못하네)

(2) 악곡분석

매우 느린(Ziemlich langsam) 4/4박자, B장조인 이 곡은 사랑의 슬픔에 잠긴 젊은이가 옛날의 꿈을 회상하고 홀로 슬피하며 나무그늘을 거니는 모습을 노래하고 있다. A-A'-B-A"의 변형된 유절 형식이며 부드럽고 온화한 곡이다.

이 곡의 구성을 도표화하면 다음과 같다. <표 6>

<표 6> 제 3곡 Ich wandelte unter Bäumen 의 구성

빠르기	박자	구성	마디	조성
Ziemlich langsam	4/4박자	전주	1~4	B
		A	4~13	B
		A'	13~22	B
		B	22~30	G
		A"	30~40	B
		후주	40~45	B

4마디의 전주는 슬픔에 잠겨 옛날을 회상하는 젊은이의 복잡한 심경을 묘사한 부분이다. 울림을 가지고 당당하게 2박자의 첫 코드를 시작하나 오른손의 당김음이 흔들리는 마음을 표현한 듯 동요를 느끼게 해준다. 전주의 기분은 노래의 ‘Gram(원망, 비탄)’을 마음에 담고 시작한다. 제 2마디부터는 반음 하행하며 반복되는 크로마틱(chromatic)진행을 하고 있다. 동형진행에 의한 연속적인 부속화음의 사용( V<sub>7</sub>/iv V<sub>7</sub>/ii V<sub>7</sub>/V)으로 젊은이의 용기 없고 희망 없는 마음을 표현한다. 아련한 마음이 점점 더해가다 제 4마디에서 마음을 가다듬듯 하행하며 성악성부의 도입을 준비한다. (악보 15)

(악보 15) 제 1마디~제4마디(전주)

1 *Ziemlich langsam*

B ; I V<sub>3</sub><sup>4</sup> I V<sub>3</sub><sup>4</sup> V<sub>7</sub>/vi V<sub>7</sub>/ii V<sub>7</sub>/V V<sub>7</sub>

노래부가 시작되는 제 4마디에서 성악가는 노래의 직전에 숨을 쉬지 말고 하행하는 마지막 8분 음표를 속으로 함께 노래하면서 준비하여 피아노의 라인을 받아 나올 수 있도록 한다. ‘Ich wandelte unter den Bäumen (나는 나무들 밑을 서성였네)’ 까지 한 호흡으로 노래 한 후 mit전에 숨을 쉬는 것이 효과적인 것이다.

제 5마디에서 제 8마디에는 전체적인 분위기를 결정짓는 ‘Gram(원망, 비탄)’ 을 향해서 진행되도록 한다. 노래선율과 반주부가 함께 진행되고 있으므로 왼손의 베이스를 성악선율과 2중주하듯 연주해주며, 제 5마디에서는 ‘wandelte’ 를 제 7마디에서는 ‘Gram’ 을 강조하여 같은 리듬이지만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해준다.(악보16)

(악보 16)제 4마디~제8마디

“나는 나무들 밑을 서성였네.  
홀로 슬픔을 함께하며;”

The musical score consists of two staves. The top staff is the vocal line, starting with a piano (p) dynamic. The lyrics are: "Ich wan - del - te un - ter den Bäu - men mit mei - nem Gram - - al - lein;". The bottom staff is the piano accompaniment, starting with a piano (p) dynamic. The bass line is double-stemmed with the vocal line in measures 5, 7, and 8. The piano accompaniment includes a piano (p) dynamic marking.

제 9마디~제 13마디는 옛 꿈이 살며시 들어온 듯 몽상적인 느낌으로 표현하도록 한다. ‘alte traumen(옛 꿈)’ 이 떠오른 후에는 약간의 흥분으로 셋잇단음표로 상승되는 진행을 보여주고 있다. 11마디의 rit.는 성악가가 상승된 기분을 받아 충분히 불러지게 기다린 후 제 12마디에서 피아노가 연결처럼 노래부를 받아 마무리 짓도록 한다. 이는 슈만의 특징적인 가곡 작곡법이다.

제 13마디는 반중지로 마무리 되는데 여기의 페르마타는 마치 꿈이 슬며시 들어와 머물러 있듯이 여유 있게 연주한다. (악보 17)

(악보 17)제 9마디~제 13마디

“그 때 지난날의 꿈이 찾아와  
내 가슴 속으로 살그머니 파고들었네.”

B ; I -7 vi Vi 6

ii 7

V 9

제 13마디의 마지막 박자부터는 A'부분으로 앞과 같은 구조를 띠고 있다. 제 14마의 'Wörtlein' 과 제 16마디의 'Voeglein' 을 강조하여 같은 리듬이지만 가사의 의미가 잘 전달되어 질 수 있도록 하고 제 16마디에서는 'luftiger Höh' 의 느낌이므로 앞에서 왼손의 베이스라인에 비중을 두었던 것과는 대조적으로 오른손 윗 선율을 살려서 연주하도록 한다. (악보 18)

(악보 18) 제 13마디~제 22마디

"누가 너희에게 그 말을 가르쳐 주었니.  
하늘 높이 나는 작은 새들아?  
잠잠 하거라! 내 마음이 그 말을 들으면,  
또 다시 고통에 빠질 테니."

13 *mf* wer hat euch dies Wört - lein ge - lel - ret, ihr Vög - lein in luf - ti - ger Höh? Schweigt

18 still, wenn mein Herz es hö - ret, dann tut es noch einmal so weh. *ritard.* *p*

제 22마디 마지막 박자부터는 새들이 노래하는 장면으로 전환된다. B장조의 VI도 변성화음을 통해 조성이 G장조로 전조되며 음역 또한 옥타브위로 올라가서 하늘높이 떠있는 새들이 작고 어여쁘게 노래함을 묘사하는 부분이다. 피아나의 다이내믹을 pp로 바꾸어주고 노래역시 mezza voce시켜 하늘높이 떠있는 새들이 말하는 효과를 내주도록 한다. 반주의 음역은 노래 선율보다 한 옥타브위에서 화음으로 되어있는데 노래와 부딪치지 않게 오른손의 윗선율을 강조하여 밝은 음색으로 새들의 sound를 나타내주도록 한다. (악보 19)

(악보 19) 제 22마디~제 30마디

“한 소녀가 걸어가면서  
 끊임없이 노래를 했네.  
 그때 우리 새들이 들었네.  
 그 예쁜, 황금색 말(言)을”

22 *p* *Langsamer* *rit.* *3*  
 Es kam ein Jung - frau - lein ge - gan - gen, die sang es im - mer fort, da

22 *rit.* *pp* *3* *rit.* *3*

G ; I I 6 -4 ii 5 6 - iv 4 6 ii 7 I 6

27 *rit.* *3*  
 ha - ben wir Vög - lein ge - fan - gen das hübsche gold - ne Wort.

27 *rit.* *3*

제 30마디의 페르마타를 지나면서 다이내믹이 mf로 변하고 있다. 이 부분은 새들의 말에 젊은이가 받아들이지 않고 화를 내는 듯한 느낌으로 조금 크게 부르도록 한다. 제 31마디부터는 A" 부분으로 앞과 같은 구조이나 특별한 말의 포인트 없이 하나의 라인으로 표현한다. 제 37마디 'ich aber niemandem trau. (나는 다시는 아무도 믿지 않아)' 에서는 사랑의 슬픔이 너무 커서 새들조차 믿을 수 없음을 그리고 있으므로 피아노는 저 작게 소극적으로, 4분 음표와 8분 음표는 잠시 멈추었다가 다시 연결되는 기분으로 처리하여 성악부가 독백하듯 연주하는 분위기를 도와준다. (악보 20)

(악보 20) 제 30마디~40마디

"나에게 더 이상 말하지 마라.  
지혜로운 작은 새들아;  
너희는 내게서 슬픔을 앗아가려 하지만,  
나는 다시는 아무도 믿지 않아."

제 40마디부터는 성악성부의 노래는 끝나지만 피아노의 후주가 시작되어 다시 회상하는 장면을 시작한다, 제 44마디~제 45마디는 슬픔이 아직 남아 있듯 *decresc.*하면서 왼손의 윗선을 라인으로 이어준다. 제 45마디의 마지막 B코드는 종지화음으로는 불완전한 2전위의 3화음을 사용하여 젊은이의 슬프고 불안한 마음을 상징하듯이 아쉬움을 남긴 채로 곡을 끝맺는다. (악보 21)

(악보 21)제 40마디~제 45마디(후주)

B ; I V<sub>3</sub><sup>4</sup> I V<sub>3</sub><sup>4</sup> V<sub>7</sub>/vi V<sub>7</sub>/ii

V<sub>7</sub>/V V<sub>7</sub> — I

#### 4) Lieb Liebchen, leg's Händchen (내 사랑아, 너의 두 손을)

##### (1) 가사의 원문 및 번역

Lieb Liebchen, leg's Händchen aufs Herze mein.	내 사랑아, 네 두 손을 나의 가슴에 얹으렴.
ach hörst du, wie's pochet im Kämmerlein?	아, 작은 방 안에서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니?
Da hauset ein Zimmermann schlimm und arg	거기엔 악의에 찬 못된 목수가 살면서
der zimmert mir einen Totensarg.	나를 위해 죽음의 관을 짜고 있단다.
Es hämmert und klopfet bei Tag uud bei Nacht,	밤낮으로 망치 두드리는 소리끊임이 없네.
es hat mich schon längst um den Schlaf gebracht,	이미 오래전에 그 소리가 나를잠으로 인도했네
Ach! sputet euch, Meister Zimmermann,	아! 서둘러다오 목수여.
damit ich balde schlafen kann.	내가 어서 잠들 수 있도록

(2) 악곡분석

사랑하는 여인으로 인한 가슴의 고통치는 소리와 죽음을 예비하는 목수의 망치소리를 묘사하고 있는 이 곡은 민요풍의 단순한 유절형식의 e단조의 곡이다. 전주와 후주가 없는 것을 특징으로 볼 수 있다.

이 곡을 도표화하면 다음과 같다.

제 4곡 Lieb Liebchen, leg's Handchen 의 구성

빠르기	박자	구성	마디		조성
Nicht schnell	2/4박자	A	a	1~8	e
			b	8~17	e <sup>b</sup> →e
		B	간주	17~20	e
			a	20~28	e
			b	28~37	e <sup>b</sup> →e

앞 곡의 여운을 살며시 깨듯 전주 없이 못갓춘마디로 시작하는 이곡은 작지만 긴장감 있게 연주하여 스산한 곡의 분위기를 살려주어야 한다. 오른손의 엇박 리듬은 사랑하는 연인에 대한 심장의 고동치는 소리와 목수의 망치질 하는 소리를 묘사한 것으로 아무 수식 없이 건조하게 표현해준다. 제 7마디에서는 스타카토가 첨가되는데 ‘pochet im Kämmerlein(작은방에서 두드리는 소리)’를 묘사하므로 소리를 모아내도록 한다.(악보22)

(악보 22) 제 1마디 ~ 제 8마디

“내 사랑아, 네 두 손을 나의 가슴에 얹으렴.  
아, 작은 방 안에서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지?”

Nicht schnell *p*

Lieb Lieb chen, leg's Hand chen aufs Her -- ze mein, ach

e ; i<sup>6</sup> iv<sup>6</sup><sub>4</sub> i i<sup>6</sup> ii<sup>7</sup> i iv<sup>6</sup><sub>4</sub> i

horst du, wie's pochet im Kam -- mer lein? Da

iv<sup>6</sup><sub>4</sub> i iv<sup>6</sup><sub>4</sub> i iv<sup>6</sup><sub>4</sub> i V e<sup>b</sup>; vii<sup>o</sup>

제 8마디에서 제 12마디는 반음계적인  $e^b$  단조로 전조되는데 ‘Ein Zimmermann schlimm und arg(악의에 찬 못된 목수)’를 화성적 색채로 나타내어 상징적으로 부각시켜주도록 한다. 제 10마디에서는 ‘Zimmermann(목수)’를 셋잇단음표로 강조하여 부르고, 왼손 반주의  $C^b$  음은 마치 작은 방안에 울리는 망치소리처럼 액센트를 강조하여 표현한다. 그 후 왼손의 라인이 점점 반음계적으로 하향하고 있는데 이는 목수가 만들어 가는 죽음의 관(죽음의 순간)이 다가옴을 묘사한 것이다.

제 13마디의 B음에 이어지는 오른손의 감화음( $V_7/e$ )은 심장이 움직임이 정지된 느낌으로 머물러지고 성악성부는 공포감에 두려워 하는 듯한 기분으로 노래한다. 이 느낌을 제 15마디에서 피아노가 받아 공기에 떠 있는 영혼의 느낌으로 ‘Totensarg(죽음의 관)’을 미리 긴장감 있게 표현하여 성악성부가 이어지도록 한다. (악보 23)

(악보 23) 제 9마디~16마디

“거기엔 악의에 찬 못된 목수가 살면서  
나를 위해 죽음의 관을 짜고 있단다.”

9  
hau set ein Zim mer mann schlimm und arg, der

e<sup>b</sup> ; vii<sup>o</sup>      vii<sub>2</sub><sup>4</sup>      i<sub>4</sub><sup>6</sup>      —      i<sub>6</sub> i

zim - mert mir ei - nen To - ten

i<sub>4</sub><sup>6</sup>/e      e ; i<sub>4</sub><sup>6</sup>      i<sub>4</sub><sup>6</sup>      i

간주는 16마디 마지막 박자에서 노래선율이 끝나기도 전에 악센트가 있는 선행음으로 시작한다. 왼손과 오른손의 엇박 리듬이 크레센도 되면서 공포의 심장박동 또한 점점 커지는데 이는 두려움과 죽음에 대한 공포감의 떠는 젊은이의 모습을 묘사한 것이며 제 19마디의 악센트를 강조하여 이런 젊은이의 두려움을 효과적으로 표현하도록 한다.(악보 24)

(악보 24) 제 16마디~제 20마디(간주)

The musical score consists of two staves. The top staff is a vocal line in treble clef with a key signature of one sharp (F#) and a common time signature. It begins at measure 16 with a whole rest, followed by four more measures of whole rests, ending with a quarter rest. The bottom staff is a piano accompaniment in bass clef with the same key signature and time signature. It starts at measure 16 with a quarter note G4, followed by a quarter note A4, and a quarter note B4. The next measure contains a quarter note C5, a quarter note B4, and a quarter note A4. The third measure has a quarter note G4, a quarter note F#4, and a quarter note E4. The fourth measure features a quarter note D4, a quarter note C4, and a quarter note B3. The fifth measure contains a quarter note A3, a quarter note G3, and a quarter note F#3. The sixth measure has a quarter note E3, a quarter note D3, and a quarter note C3. The seventh measure contains a quarter note B2, a quarter note A2, and a quarter note G2. The eighth measure features a quarter note F#2, a quarter note E2, and a quarter note D2. The ninth measure has a quarter note C2, a quarter note B1, and a quarter note A1. The tenth measure contains a quarter note G1, a quarter note F#1, and a quarter note E1. The eleventh measure features a quarter note D1, a quarter note C1, and a quarter note B0. The twelfth measure has a quarter note A0, a quarter note G0, and a quarter note F#0. The thirteenth measure contains a quarter note E0, a quarter note D0, and a quarter note C0. The fourteenth measure features a quarter note B0, a quarter note A0, and a quarter note G0. The fifteenth measure has a quarter note F#0, a quarter note E0, and a quarter note D0. The sixteenth measure contains a quarter note C0, a quarter note B0, and a quarter note A0. The seventeenth measure features a quarter note G0, a quarter note F#0, and a quarter note E0. The eighteenth measure has a quarter note D0, a quarter note C0, and a quarter note B0. The nineteenth measure contains a quarter note A0, a quarter note G0, and a quarter note F#0. The twentieth measure features a quarter note E0, a quarter note D0, and a quarter note C0. The piano accompaniment includes various musical notations such as slurs, accents, and dynamic markings.

제 21마디부터 오른손의 8분 음표는 앞과 마찬가지로 목수의 망치 소리를 묘사한 것이며, 왼손의 선율은 ‘죽음의 종’을 암시하듯 일순간에 하행도약을 거듭하면서 저음역으로 내려가 깊이감을 더해 준다. 제 27마디의 스타카토 역시 ‘Schlaf(잠, 죽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구별되어 표현해 주도록 한다.(악보 25)

(악보25) 제 20마디~제 28마디

“밤낮으로 망치소리 두드리는 소리 끊임이 없네.  
이미 오래전에 그 소리가 잠으로 인도했네.”

20

Es häm — mert und klo — pfet bei Tag und bei Nacht, es

*p*

25

hat mich schon längst um den S c h l a f ge — bracht

제 28마디부터는 사랑하는 연인으로 인한 고통이 너무 커서 차라리 죽음을 택한다는 슬픔을 안고 ‘Ach sputet euch, Meister Zimmermann (아! 서둘러다오 목수여)’ 를 간절히 호소하 듯 불러준다. 피아노의 오른손은 목수를 재촉하는 듯 당김음 리듬으로 표현한다. (악보 26)

(악보 26) 제 28마디~제 32마디

“아! 서둘러다오 목수여.”

28

Ach spu - tet euch, Mei - - ster Zim - - mer - mann,

제 33마디의 피아노성부의 왼손은 2마디동안 지속되며 오른손의 악센트와 함께 얼마 안 있으면 울 죽음에 숨이 멎은 듯 정지한다. 제 35마디는 죽음을 알리는 종소리를 연상하며 스타카토로 연주한다. 성악성부가 죽음직전의 긴장됨과 힘없는 목소리로 p로 곡을 끝맺는다. (악보 27)

(악보 27) 제 32마디 ~ 제 37마디

"내가 어서 잠들 수 있도록"

32

da - mit ich - bal - - de

*p*

36

*p*

schla - - fen kann.

5) Schöne Wiege meiner Leiden (내 고통의 아름다운 요람)

(1) 가사의 원문 및 번역

Schöne Wiege meiner Leiden	내 고통의 아름다운 요람,
schönes Grabmal meiner Ruh',	내 안식의 아름다운 무덤
schöne Stadt, wir müssen scheiden,	아름다운 도시여, 우린 이제 헤어져야 한단다.
lebe wohl!, ruf' ich dir zu.	잘 있거라! 나는 너를 향해 소리친다.

Lebe wohl, du heil'ge Schwelle,	잘 있거라! 성스러운 문,
wo da wandelt Liebchen traut,	나의 사랑이 친숙하게 거닐었던 곳.
lebe wohl!, du heil'ge Stelle,	잘 있거라! 너 성스러운 장소.
wo ich sie zuerst geschaut.	내 그녀를 처음 만났던 곳.

Hätt' ich dich doch nie gesehn,	차라리 당신을 만나지 말 것을,
schöne Herzenskönigin!	아름다운 마음의 여왕이여!
nimmer wär' es dann geschehen,	그랬으면 결코 없었을 것이야,
daß ich jetzt so elend bin.	나 지금과 같이 비참해지는 일은.

Nie wollt' ich dein Herze rühren,	나 결코 그대 마음을 움직이려 한 적 없고,
Liebe hab' ich nie erleht;	당신에게 사랑을 갈구하지도 않았어.
nur ein stilles Leben führen	난 단지 조용한 인생을 살고 싶었을 뿐이야.
wollt' ich, wo dein Odem weht.	당신의 숨결 불어오는 곳에서.

Doch du drängst mich selbst von hinnen,      그러나 당신은 여기서도 나를 떠나며,  
bitter Worte spricht dein Mund;              그대의 입은 쓰디쓴 말을 쏟아내는구나.  
Wahnsinn wühlt in meinen Sinnen,          광기가 내 감각 속으로 파고들어  
und mein Herz ist krank und wund.          내 마음은 병들고 상처 받았네.

Und die Glieder matt und träge              몹시 지치고 맥 빠진 사지를 이끌고  
schlepp' ich fort am Wanderstab,            나 지팡이에 의지하여 떠나노라.  
bis mein müdes Haupt ich lege              내 피곤한 머리를 저 멀리  
ferne in ein kühles Grab.                  차가운 무덤 속에 누일 때까지.

(2) 악곡분석

이 곡은 리터크라이스 Op.24 중 가장 규모가 큰 곡으로, 전체적으로 Bewegt(움직임을 가지고)의 4/3박자 A-B-A'-C-A''의 론도 형식으로 구성되어있다. 반주부는 재현될 때마다 조금씩 변화하나 항상 정열적이며, 잦은 전조로 감정의 변화를 표현하고 있다.

이 곡을 도표화 하면 다음과 같다.

제 5곡 Schöne Wiege meiner Leiden 의 구성

빠르기	박자	구성	마디		조성
Bewegt	3/4박자	A	도입부	1~2	E
			a	3~20	
			간주	21	
			a'	22~39	
		B	b	39~49	e→C→a
			간주	50~52	e→E
		A'	53~70		E→f <sup>#</sup>
		C	70~93		f <sup>#</sup> →g <sup>#</sup> →e→a→e
		A''	a''	94~108	E
			후주	109~121	

이 곡은 4번곡과 바로 이어지게 연주 한다.

2마디의 짧은 도입부로 시작되는 이곡에서 반주부의 지속적인 엇박 리듬은 ‘영혼의 괴로운 정신’ 을 묘사하고 있다. 마음의 고통이 8분음표로 급해지고 있는데 피아노는 표면적으로 드러나게 괴로운 심정을 표현하고, 성악부에서는 이와는 상반되게 ‘Schöne(아름다운)’ 를 강조하여 레가토 라인으로 부르도록 한다. 베이스는 계속 E음을 지속하다 제 5마디에서 G<sup>#</sup>→B→E로 움직이고 있는데 앞서 나왔던 ‘죽음의 종’ 의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베이스의 어두운 색깔을 암시적으로 묘사하여 음향적으로 처리한다. (악보 28)

(악보 28) 제 1마디~제 6마디

“내 고통의 아름다운 요람”

제 7마디부터는 제 11마디를 향하여 상행진행 하고 있는데 이는 슬픔이 점점 고조되어 감을 나타내주며, 제 11마디의 ‘schöne Stadt (아름다운 도시)’ 는 4분 음표를 통해 한층 더 강조된다. 제 13마디까지 8분음표로 계속 진행되던 반주부는 제 14마디의 ‘müssen scheiden(헤어져야 한다)’ 에서 4분 음표로 잠시 중단된 후 슬러 스타카토가 붙은 4분음표로 진행된다. 이 별할 수밖에 없음에 아쉬워하는 슬픈 마음을 담아 ‘lebe wohl(잘 있거라)’ 을 미리 선행하여 피아노가 노래한다. 제 17마디의 8분 음표는 움직임의 감을 표현하고 성악부에서도 ‘lebe wohl(잘 있거라)’ 를 메아리치듯 2번 반복한다. (악보 29)

(악보 29) 제 7마디 ~ 제 20마디

"내 안식의 아름다운 무덤,  
아름다운 도시여, 우린 이제 헤어져야 한다.  
잘 있거라! 나는 너를 향해 소리친다."

7  
schö - nes Grab - mai mei - ner Ruh, schön - ne

E ; I vi<sub>5</sub><sup>6</sup> ii vii<sup>0</sup> iii

12  
Stadt, wir müs - sen scheiden, le - be wohl, ruf ich dir

ritard.

I<sub>6</sub> I<sub>5</sub><sup>6</sup> IV I<sub>4</sub><sup>6</sup> vii<sub>5</sub><sup>6</sup>/V I<sub>4</sub><sup>6</sup> V<sub>2</sub><sup>4</sup>

17  
zu. Le - be wohl, le - be wohl!

ritard.

I<sub>6</sub> V<sub>7</sub>/vi IV I<sub>4</sub><sup>6</sup> V I

제 20마디에서 제 39마디는 2마디 간주에 이은 a'부분으로 앞의 반주형태를 반복하고 있다. 사랑스런 여인과의 추억이 담긴 장소를 회상하는 부분으로 아름답게 편안하게 표현한다. 제 33마디~제 34마디는 제 14마디~제 15마디의 리듬형태가 비슷하나 'lebe wohl(잘 있거라)'의 연결구가 아닌 'du heil'ge Stelle(너 성스러운 장소)'의 의미로 해석하여 '그녀와의 추억이 어린 장소'를 기억하듯 부점 리듬을 살려 연주하도록 한다. 이처럼 같은 리듬형태라도 가사의 의미에 따라 다르게 표현하여 곡의 느낌을 살려주어야 한다. 부점 리듬 후 성악가는 자유롭게 'wo ich sie zuerst geschaut(내 그녀를 처음 만났던 곳)'을 부른다.

반주부의 제 36마디의 오른손 8분 음표는 삶의 지점에서 죽음의 지점으로 옮겨가듯 조금 몰아가는 느낌으로 크레센도를 살려 연주한다. 왼손의 B<sup>#</sup>은 오른손의 도망가는 반음계의 정점을 찍어주는 부분으로 놓치지 말고 액센트를 살려주도록 한다. 제 37마디의 성악부의 'lebe wohl'은 떠나버림에 아쉬워 뒤를 쳐다보듯 rit.하고 제 37마디의 반주부의 rit.는 싱어가 자유롭게 시간을 누릴 수 있는 정도로 처리해주도록 한다. (악보30)

(악보 30) 제 30마디~제 39마디

"잘 있거라! 너 성스러운 장소.  
내 그녀를 처음 만났던 곳."

Musical score for measures 30-34. The score is in G major (one sharp) and 4/4 time. It features a vocal line and a piano accompaniment. The lyrics are: "le - be wohl, du heil - - ge Stel - le, wo ich". The piano accompaniment consists of chords in the right hand and a bass line in the left hand.

Musical score for measures 35-39. The score is in G major (one sharp) and 4/4 time. It features a vocal line and a piano accompaniment. The lyrics are: "sie zuerst ge schaut. Le - be wohl, le - be wohl! Hät ich". The piano accompaniment includes a melodic line in the right hand and a bass line in the left hand. Performance markings include *ritard.* and *mf*.

제 39마디의 첫 음의 종지 화음 뒤에 갑작스런 sf로 분위기가 바뀌면서 ‘rascher(보다 빠르게)’ 로 바뀌어 e단조로 전조된다. 성악성부는 ‘Hätt’ ich dich doch nie geseh’n(차라리 당신을 만나지 말 것을), ‘schöne Herzenskönigin!(아름다운 마음의 여왕이여!)’ 를 원망적인 목소리로 격하게 부르며, 제 40마디의 ‘nie’ 와 제 42마디의 ‘Her’ 의 액센트 부분에서는 화가 난 감정을 sf를 동반한 오른손의 강한연타와 왼손의 액센트를 통해 더 고조시켜 주도록 한다.(악보 31)

(악보 31) 제 39마디~제43마디

"차라리 당신을 만나지 말 것을,  
아름다운 마음의 여왕이여!"

I e ; i - iv<sub>7</sub> ii<sup>6</sup> V i<sub>4</sub><sup>6</sup> iv<sub>7</sub> V<sub>7/III</sub>

제 44마디부터는 C장조로 전조된다. 제 44마디~제 46마디까지 세마디를 점차적으로 cresc.시켜 ‘nimmer wär’ es dann geschehen (그랬으면 결코 없었을 것이야)’ ‘daß ich jetzt so elend bin(나 지금과 같이 비참해지는 일은)’ 을 마치 탄식하듯 안타까운 마음을 담아 연주한다.

제 46마디의 G#음을 통해 a단조로 바뀌는데, 잦은 전조를 통해 젊은이의 복잡한 심리상태를 나타내 주고 있다. 안타까움의 여운을 rit.로 처리하고 제 49마디~제 52마디의 간주에는 ‘so elend(비참해지는)’ 의 느낌을 받아 점점 rit.하면서 오른손의 하행하는 당김음 리듬을 살려 연주하며 안타까운 마음을 더해 주도록 한다. (악보 32)

(악보 32) 제 44마디~제 52마디

“그랬으면 결코 없었을 것이야,  
나 지금과 같이 비참해지는 일은.”

C ; V<sub>5</sub><sup>6</sup>/vi I ii<sub>7</sub> vii<sub>5</sub><sup>6</sup>/a i<sub>6</sub> i

- V<sub>7</sub>/e iv<sub>6</sub> V<sub>5</sub><sup>6</sup> vii<sub>7</sub><sup>o</sup>/vii<sub>o</sub> V<sub>5</sub><sup>6</sup>/E

제 53마디부터는 제 70마디 첫 박까지는 A'로 'nur ein stilles Leben führen(난 단지 조용한 인생을 살고 싶었을 뿐이야)' 의 젊은이의 소극적인 마음이 나타나는 부분이다. 세 번의 반복되는 A부분 중에서 가장 볼륨을 줄여 연주하며, 반주부의 음역 또한 앞 보다 한 옥타브 높아져 표현의 폭이 좁아졌으므로 잔잔하게 젊은이의 체념한 마음을 담아 연주한다. (악보 33)

(악보 33) 제53마디~제 70마디

"나 결코 그대 마음을 움직이려 한 적 없고,  
당신에게 사랑을 갈구하지도 않았어.  
난 단지 조용한 인생을 살고 싶었을 뿐이야.  
당신의 숨결 불어오는 곳에서."

53

Nie wollt ich dein — Her — ze rü — ren, Lie — be

58

hab ich nie — er fleht; nur ein stil — les

63

Le — ben — f ü — ren wollt ich, wo dein O — dem

67

weht, wo dein O — dem weht. Doch du —

제 70마디부터는 갑작스럽게  $f^{\#}$  단조로 전조되며 ‘doch(그러나)’ 가  $sf$ 로 강조되어 분위기가 반전된다. 체념했던 마음이 실연의 상처로 광기 어리게 표출되고 있는데, 다이내믹이  $f$ 로 커졌고 반주의 급격한 부점 리듬과  $sf$ , 성악성부에서 상행할 때 터지는 액센트 등을 통해 실연당한 젊은이의 분노를 표현한다. (악보 34)

(악보 34) 제 70마디 ~ 제 74마디

“그러나 당신은 여기서도 나를 떠나며,  
그대의 입은 쓰디쓴 말을 쏟아내는구나.”

70 weht. Doch du drängst mich selbst von hinnen, bit - - tre

$vii_3^{\circ 4}/f^{\#}$  ;  $V_2^4 i 6$   $V_3^4$   $i$   $vii_3^{\circ 4}/g^{\#}$

73 Wor - - te spricht dein Mund;

$vii_3^{\circ 4} i 6$   $V_3^4$   $i$

제 74마디부터는 실연으로 상처 입은 마음을 꿰어오르는 광기로 표현한 부분으로 혼란스럽고 흔들리는 마음의 상태를 나타내는 듯 옥타브 간격의 당김음 리듬으로 왼손 melody를 오른손이 모방하며 진행된다. 제 79마디에서는 'krank und wund(병들고 상처입어)' 나약해 지듯 하행하는 선율을 서서히 rit.시킨다.(악보35)

(악보 35)제 74마디~제 80마디

"광기가 내 감각 속으로 파고들어  
내 마음은 병들고 상처 받았네."

74 *p*  
Mund, Wahn - sinn wütht in mei - nen sin - nen, und mein

78 *ritard.*  
Herz ist krank und wund.

74 \* \* \* \* \*

78 \* \* \* \* \*

제 80마디부터는 병들고 상처입어 나약해진 내면을 묘사하므로 p로 음량을 줄여준다. 그러나 실연의 상처가 마음속에 남아서 꿈틀거리듯 엇박의 불안한 리듬과 상승하는 반음계적 진행을 통해 긴장감을 더해주고 있다. 점점 상승하던 음들은 제 88마디에 이르러 하행하기 시작하며 제 89마디의 ‘bis mein’ 부터 마치 무덤속으로 향하듯 선율이 급격히 하행한다. 성악성부의 음역이 반주부의 오른손과 같기 때문에 피아노에 노래가 묻히지 않도록 주의하며 왼손의 울림을 더 표현하도록 한다.

제 91마디에 이르러서 몰아치던 반주를 마음을 정리하듯 rit.되고 제 92마디에서는 Adagio로 느려져 성악부의 ‘ferne in ein kühles Grab(차가운 무덤 속에 누일 때까지)’ 는 마치 독백하듯 디션을 강조하여 부른다. 피아노는 4분 쉼표가 있지만 페달을 계속 눌러줌으로써 불협화적인 감7화음을 오랫동안 울려주어 무덤안의 캄캄하고 공포스러운 분위기를 조성해 주도록 한다.(악보36)

(악보 36) 제 80마디 ~ 제 93마디

“몹시 지치고 맥 빠진 사지를 이끌고  
 나 지팡이에 의지하여 떠나노라.  
 내 피곤한 머리를 저 멀리  
 차가운 무덤 속에 누일 때까지.”

80  
 wund. Und die Glieder matt und träge

$g^{\#}$  ; V V e ; V vi 7 V/vi

85  
 schlepp ich, schlepp ich fort am Wanderstab, bis mein

vi a ; V 7 i vi 6 V<sub>3</sub><sup>4</sup> i 6

90  
 müdes Haupt ich lege ferne in ein kühles Grab.

vii<sup>o</sup>/<sub>7</sub> e vii<sup>o4</sup>/<sub>3</sub> vii<sup>o</sup>/<sub>7</sub> V vii<sup>o6</sup>/<sub>5</sub> V

슈만은 제 94마디부터 제 3마디~제 14마디를 다시 한번 반복시킴으로써 시의 여운을 더 강하게 해 주고 있다. 그러므로 처음 보다 헤어지는 아쉬움이 배어나도록 느낌을 실어 연주하도록 한다. 제 106마디~제 108마디에서는 마지막 작별인사를 하듯 슬픔을 갖고 충분히 느리게 Adagio로 ‘Lebe wohl. lebe wohl!(잘있거라. 잘있거라)’ 를 부른다. (악보37)

(악보 37)제 94마디~제 108마디

"잘 있거라. 잘 있거라!"

The image shows a musical score for a vocal and piano piece. It consists of three systems of music. The first system starts at measure 94 and ends at measure 98. The second system starts at measure 99 and ends at measure 103. The third system starts at measure 104 and ends at measure 108. The score is in G major (one sharp) and 4/4 time. The tempo is marked 'Adagio' starting at measure 104. The dynamics are marked 'p' (piano) throughout. The lyrics are in German: 'schöne Wiege meiner Leiden, schönes Grabmal meiner Ruh, schöne Stadt, wir müssen scheiden Lebe wohl, lebe wohl!'. The piano accompaniment features a recurring rhythmic pattern of eighth notes in the right hand and chords in the left hand. The final measures (106-108) are marked 'ritard.' (ritardando) and feature a slower, more expressive piano accompaniment.

후주가 시작되는 제 109마디~제 114마까지는 동형진행에 의한 회피된 해결( $V \rightarrow vi$ )을 사용하였는데, 해결화음 위에 불협화적인 전타음을 사용하여 화성의 색채적인 느낌을 더하였다. 악센트와 sf를 강조해 연주하고 제 115마디의 A음에 이른 후에는 오른손의 선율선을 강조하여 앞과 대조시켜 표현하도록 한다. 후주에서 사용되는 이러한 화성과 선율적인 색깔의 교차는 슈만이 즐겨 썼던 방법으로 후에도 많이 사용된 슈만가곡의 특징이다.

제 116마디의 rit.이후 제 117마디~제 118마디에서는 한 옥타브 아래서 멜로디를 반복해 줌으로 헤어짐의 아쉬움이 여운처럼 길게 남도록 마지막의 연장된 종지화음을 충분히 느낀 후 곡을 마치도록 한다. (악보 38)

(악보 38) 제 109마디~제 121마디(후주)

E;  $V_5^6/IV$  ii  $V_7$  vi  $V_5^6/IV$

ii  $V_7$   $V_9$   $V_7$

$V_9$   $V_7$  — I

6) Warte, warte, wilder Schiffmann (기다려라, 거친 뱃사람들아)

(1) 가사의 원문 및 번역

Warte, warte, wilder Schiffmann, gleich folg' ich zum Hafen dir, von zwei Jungfrau nehme ich Abschied, von Europa und von ihr.	기다려라, 기다려라, 거친 뱃사람아, 내 곧 항구로 너를 따르리라. 나는 두 젊은 아가씨와 작별하네, 유럽대륙과 그녀에게서.
Blutquell, rinn' aus meinen Augen, Blutquell, brich aus meinen Leib, daß ich mit dem heißen Blute meine Schmerzen niederschreib'.	피의 샘이, 나의 눈에서 흘러내리고 피의 샘이, 나의 몸을 뚫고 나오네, 그것은 이 뜨거운 피로 나의 고통을 기록할 수 있게 하네.
Ei, mein Lieb, warum just heute schaudert dich, mein Blut zu sehn? sahst mich bleich und herzeblutend lange Jahre vor dir stehn! Oh!	아, 내 사랑아, 어찌하여 오늘 나의 피를 보고 두려워하는가? 보시오, 창백하게 심장에서 피를 흘린 체 오! 오랫동안 그대 앞에 서 있는 나를.
Kennst du noch das alte Liedchen von der Schlang' im Paradies, die durch schlimme Apfelnabe unsern Ahn ins Elend stieß?	너는 아직 그 옛 노래를 알고 있는가 낙원에서의 뱀의 대한 노래를, 악한 마음에서 사과를 따게 하여 우리들의 조상을 불행에 처 넣은 것을?
Alles Unheil brachten Äpfel! Eva bracht' damit den Tod, Eris brachte Trojas Flammen; Du bracht'st beides, Flamm' und Tod.	모든 불행은 사과가 가져왔구나! 이브는 그로 인해 죽음을 가져왔고, 에리스는 트로이의 불길을 가져왔지! 너는 죽음과 불길. 그 모두를 가져왔다.

(2) 악곡분석

이 곡은 불행과 죽음에 대하여 초조하고 불안해하는 심정을 일관된 스타카토의 반주 속에서 다이내믹의 교묘한 변화를 이용하여 잘 나타내고 있다. 시작과 끝은 E장조이지만, 잦은 전조를 통해서 흥분되고 초조한 심정을 묘사한다.

이 곡을 도표화하면 다음과 같다.

제6곡 Warte, warte, wilder Schiffmann의 구성

빠르기	박자	구성	마디		조성
Sehr rasch	4/4박 자	A	도입부	1마디	E
			a	2~12마디	E
			b	12~16마디	E→g <sup>#</sup>
			c	17~32마디	f <sup>#</sup> →E→G
			간주	33~36마디	G→E
		B	37~54마디		E
		A'	간주	55~66마디	E
			b'	66~70마디	g <sup>#</sup>
			c'	71~92마디	f <sup>#</sup> →g <sup>#</sup> →B→E
			간주	93~94마디	E
			coda	95~98마디	E
			후주	99~121마 디	E

이 곡은 일관된 스타카토의 진행으로 시작하는데 흥분되고 초조한 마음을 스타카토에 담아 씩 없이 몰아감으로써 젊은이의 쫓기는 듯한 급박한 심정을 *f*로 표현한다. 제 3마디의 왼손베이스 옥타브를 2분 음표(♩)로 미리 준비하여 ‘Schiffmann(배사람)’을 강조하고 제 4마디에의 2분 음표(♩)를 끊어서 연주하여 ‘Schiffmann’을 부르듯이 노래 부른다. (악보 39)

(악보 39) 제 1마디~제 4마디

“기다려라, 기다려라, 거친 배사람아,”

1 *Sehr rasch* *f*

War - - te, war - te wil - der schiffmann,

제 5마디부터는 점점 상승하고 있는 반주부에 ‘곧 돌아가리라’ 는 절박한 심정을 담아 속도감을 더하여 급한 마음을 표현해 준다.

제 9마디의 오른손 온음표(。)를 sf로 준비하여 제 10마디~제 12마디까지 ‘gleich(곧)’ 를 강조하여 세 번 반복한다.(악보 40)

(악보 40)제 5마디~제 12마디

"내 곧 항구로 너를 따르리라  
지금 곧, 곧, 곧!"

The musical score consists of two systems. The first system covers measures 5 to 8, and the second system covers measures 9 to 12. The vocal line is written in a soprano clef, and the piano accompaniment is in a grand staff. The key signature has one sharp (F#), and the time signature is 4/4. The piano part features a prominent, ascending accompaniment in the right hand, while the left hand provides a steady bass line. Dynamics include forte (f), fortissimo (sf), and piano (p). The lyrics are written below the vocal line.

5 *f*  
gleich — folg — ich zum Ha — fen dir.

9 *f* *f* *f* *p*  
gleich, gleich, gleich! Von zwei —

제 12마디부터는 지금까지 f로 진행되었던 셈여림이 p로 바뀌면서 분위기가 급변하며 조성 또한 g단조로 바뀐다.

제 13마디의 rit.는 애인과의 이별을 아쉬워하며 유럽대륙에 더 머물고 싶어 하는 젊은이의 마음을 묘사한 것이라 볼 수 있다.(악보 41)

(악보 41)제 12마디~제 16마디

"나는 두 젊은 아가씨와 작별하네.  
유럽대륙과 그녀에게서."

E ; I <sup>vi</sup> g# iv i V<sub>7</sub> i iv

i V<sub>7</sub> i

A tempo로 바뀌면서 제 17마디~제 24마디는 내면적인 내용으로 바뀌고 음의 높이도 높지 않다.

제 17마디와 제 21마디의 sf는 ‘Blutquell(피의샘)’의 상징이므로 아픔을 가지고 찌르듯이 연주하지만, 그 이외의 부분은 조금 여리게 연주되도록 한다. 가야하는 스타카토의 진행과 함께 사운드가 밑으로 향하게 하며 f#단조와 E장조로 전조되어 가는 화성진행에 귀를 기울인다.(악보 42)

(악보 42)제17마디~제 24마디

“피의 샘이, 나의 눈에서 흘러내리고  
피의 샘이, 나의 몸을 뚫고 나오네.”

17 *a tempo*  
Blut - - quell, rinn aus mei - nen Au - - gen.

17 *a tempo*  
*f*  
V<sub>7/f#</sub> i

21  
Blut - - quell, brich aus mei - nem Leib,

21 *f*

제 25마디~제 31마디는 4분음표의 스타카토 음형이 왼손과 오른손을 오르내리며 동형진행 하며 어지러운 분위기로 고통에 얽매인 젊은이의 모습을 표현해 주고 있다. 제 26마디의 ‘mit dem’ 의 2분 음표( J J )는 조금 끊는 듯 노래함으로써 좋지 않은 상황을 표현하도록 한다. 제 32마디에서는 마음속 깊이 갖고 있는 고통이 점점 차오르듯 힘과 속도를 실어 cresc.하며 몰아친다. (악보 43)

(악보 43)제 25마디~제35마디

"그것은 이 뜨거운 피로  
나의 고통을 기록할 수 있게 하네."

25 *p*  
daß ich mit dem hei - - ßen

28  
Blu - te mei - - ne Schmerzen

31  
nie - - der - schreib

제 36마디부터는 갑자기 p로 다이내믹이 바뀌고 화성적인 반주형으로 변화하고 있다. 제 37마디~제 54마디까지는 ‘lange Jahre vor dir steh’n! Oh!(오랫동안 그대 앞에 서 있는 나를)’ 에서 알 수 있듯이 ‘젊은이의 괴로운 상황이 오래 지속되어 왔음’ 을 움직임이 적은 부속화음을 연속적으로 사용하여 화성의 색깔로 나타내고 있다.

제 41마디~제 43마디는 삼입구의 느낌으로 ‘schaudert dich, mein Blut zu seh’n(나의 피를 보고 두려워하는가?)’ 를 다소 격한 어조로 스타카토 하면서 cresc.해준다. 제 44마디에서 다시p로 분위기가 바뀌면서 앞의 분위기로 재빨리 옮겨간다. 제 50마디에서 선율이 상승하다 제 53마디에서 갑작스레 3옥타브가 떨어지는데, 감정의 폭이 커짐이 주목하여 극적인 대조를 이끌어내도록 하며, 성악성부의 절규가 탄식으로 사그러질때 피아노도 같은 느낌을 갖고 decresc.시킨다. 연속적인 부속화음의 사용으로 인한 화성의 음색에 귀를 기울여 연주하도록 한다. (악보 44)

(악보 44)제 36마디~제 54마디

“아, 내 사랑아, 어찌하여 오늘  
나의 피를 보고 두려워하는가?  
보시오, 창백하게 심장에서 피를 흘린 채  
오랫동안 그대 앞에 서 있는 나를. 오!”

36 *p*

Ei, mein Lieb, wa - rum just heu - te

E ;  $\text{VI}_7^5 \text{b}^{\flat}$  - V<sub>7</sub>  $\text{VI}_7^5 \text{b}^{\flat}$  V<sub>7</sub>

41 *p*

schau - dert dich mein Blut zu sehn? sahst mich

I ii V V<sub>6</sub> V<sub>7/IV</sub> -

46

bleich und her - ze - blu - tend lan - ge Jah - re

V<sub>7/iii</sub> V<sub>7/IV</sub> V<sub>7/iii</sub> iii I<sup>+</sup> vi

51

vor dir stehn! Oh!

ii<sub>6</sub> V V<sub>9</sub>

제 55마디~제 66마디는 제1마디~제 12마디까지를 가사를 생략하고 재현하고 있으므로 더욱 긴장감 있게 곡을 이끌어 가야한다.

g#으로 전조되는 제 66마디마디부터는 ‘Kennst du (너는 알고 있는가?)’ 를 신중하게 문듯이 p로 작아지면서 ritard.시켜 주의를 환기시킨다. 제 12마디의 rit.가 ‘머물고 싶은 젊은이의 마음’ 의 상징이었다면 제 66마디부터는 부정적인 의미의 시작을 ritard.로 끌어가고 있기 때문에 명사들을 더 강조하여 노래해 주고 반주부의 2분 음표 스타카토도 앞보다 조금 강하게 연주 한다. (악보45)

(악보 45)제 66마디~제 70마디

"너는 아직 그 옛 노래를 알고 있는가  
낙원에서의 뱀의 대한 노래를,"

The musical score for measures 66-70 is presented in G major. The vocal line (top staff) begins at measure 66 with a *p* dynamic and a *ritard.* marking. The lyrics are: "Kennst du noch das alte Liedchen von der Schlang im Paradies,". The piano accompaniment (bottom staves) also starts at measure 66 with a *p* dynamic and a *ritard.* marking. The piano part features a 2-measure staccato pattern in the right hand and sustained chords in the left hand.

제 71마디부터는 a tempo부터는 4마디단위로 동형진행 시켜 앞서 제시된 내용을 더 발전시킨다. 반주부의 계속되는 딸림 7화음과 f#단조로의 조성변화를 통해 긴장감을 표현하고 있으므로 4분 음표 스타카토를 긴장감 있고 점차적으로 고조될 수 있도록 연주한다. (악보 46)

(악보 46)제 71마디~제 78마디

"악한 마음에서 사과를 따게 하여  
우리들의 조상을 불행에 처 넣은 것을?"

V<sub>7</sub>/f# i ii<sub>5</sub><sup>6</sup> V<sub>7</sub> i

V<sub>7</sub>/g# i ii<sub>5</sub><sup>6</sup> V<sub>7</sub> i

제 79마디부터는 꼬리를 물듯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일련의 결과를 노래하는 가사의 느낌을 살려 4마디 단위의 계속되는 동형진행을 점진적으로 cresc.시키면서 고조된 상승 분위기로 이끌어 나간다.

(악보 47) 제 79마디~제 90마디

”모든 불행은 사과가 가져왔구나!  
 이브는 그로 인해 죽음을 가져왔고,  
 에리스는 트로이의 불길을 가져왔지!”

79 Al - - les Un - heil brach - ten - Ä - pfel

83 E - - va bracht da - mit den Tod,

87 E - - ris brach - - te Tro - jas Flam - men;

제 91마디의 ‘Du’ 를 외치듯 강조하여 부르며, 제 92마디부터 상승하는 세 마디의 피아노 간주를 제 95마디의 ‘du’ 를 향해 고조시키면서 다리의 역할로 사용한다. 제 95마디부터는 coda 부분으로 du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상승하는 반주에 맞춰 제 98마디 Tod를 최고음인 A에 sf로 도달시킴으로써 ‘너로인한 죽음’ 을 강조한다. (악보 48)

(악보 48)제 91마디~제 98마디

“너는 죽음과 불길. 그 모두를 가져왔다.”

91 *sf*  
Du, —

95 *sf*  
Du brachst bei - - des, Flamm und Tod.

제 99마디부터는 후주로서 페달 없이 연주한다. 이 후주는 전체 9곡 중에서 가장 긴 후주를 가지며 피아노의 후주를 통해서 곡을 마무리 하고 있다. 음역이 최고조에 오른 후 하행하며 반복되는 동형진행을 몰아치듯 연주하여 분노에 차서 어지러운 마음을 표현하도록 하며, 자신의 운명과 계속 싸워 나가듯이 전진해 갈 수 있도록 템포를 그대로 강행해서 긴장감을 잃지 않도록 한다. 제 115마디의  $f^{\#}$ 에 도착한 후에는 의지를 놓아버리는 듯 ritard.함으로써 삶과 죽음의 경계선에서 죽음으로 옮겨가듯 제 119마디까지 하행하는 반음진행하고 있다. 세 번의 E코드는 정리하듯 마무리 하여 곡을 마친다. (악보 49)

(악보 49) 제 99마디 ~ 제 121마디(후주)

E; I (scale 적인 후 주) ii

ii ii<sub>6</sub> V<sub>7</sub> I IV I V<sub>7</sub>

I IV I V<sub>7</sub> V<sub>9/IV</sub> vii

V<sub>9/IV</sub> ii<sub>5</sub><sup>6</sup> I I —

7) Berg' und Burgen schau'n herunter (산과 성이 비쳐보이네)

(1) 가사의 원문 및 번역

Berg' und Burgen schau'n herunter	산과 성들은 아래로 비쳐 보이네.
in den spiegelhellen Rhein,	거울처럼 맑은 라인강에,
und mein Schiffchen segelt munter,	그리고 내 조각배는 즐거이 떠가네,
rings umglänzt von Sonnenschein.	사방에 밝은 햇살을 받으면서.
Ruhig seh' ich zu dem Spiele	나는 조용히 장난치는 것을 바라보네,
gold'ner Wellen, kraus bewegt.	황금빛 물결들이 출렁이며 노니는 것을.
Still erwachen die Gefühle,	고요한 감정들이 눈을 뜨네,
die ich tief im Busen hegt'.	내 가슴속 깊이 묻어두었던.
Freundlich grüßend und verheißend	다정히 인사하며, 내게 약속하면서,
lockt hinab des Stormes Pracht!;	화려하게 흐르는 강 아래로 나를 유혹하네.
doch ich kenn' ihn: oben gleißend,	그러나 난 그를 알지: 걸으론 반짝이지만
brigt sein Innres Tod und Nacht.	그 속에 내면의 죽음과 밤이 있다는 것을.
Oben Lust, im Busen Tücken,	걸으론 즐거움, 가슴속엔 악의
Strom, du birt der Liebsten Bild!	강물아 너는 내 사랑의 모습!
Die kann auch so freundlich nicken,	또한 너처럼 상냥하게 고개 끄덕이고,
lächelt auch so fromm und mild.	미소 지을 땐 온순하고 부드럽네.

(2) 악곡분석

이 곡은 라인강의 맑고 부드러운 곁과 내면의 죽음과 악의가 있는 양면적인 모습을 주인공의 사랑에 비유한 곡으로 4절의 유절 형식의 가곡이다.

이 곡을 도표화하면 다음과 같다.

제7곡 Berg' und Burgen schau'n herunter 의 구성

빠르기	박자	구성	마디		구성
Ruhig, nicht schnell	3/8박자	A	전주	1~4마디	A
			a	5~8마디	
			b	9~12마디	
			c	13~16마디	
			d	17~24마디	
			간주	25~28마디	
		A'	a'	29~32마디	
			b'	33~36마디	
			c'	37~40마디	
			d'	41~48마디	
후주	49~57마디				

이 곡은 표면적으로는 감미롭고 평온한 멜로디와 반주라인을 갖고 있지만 내면적인 내용은 죽음과 어두운 부정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연주시에 신경을 많이 써야 한다. 깊이 내용을 들여다보지 않을 시에는 오류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각 절마다 내용을 확실히 이해하고 연주하여야 할 것이다.

하이네의 시는 굉장히 부정적인데 반해 슈만의 음악은 아름다우며 긍정적으로 쓰여 있다. 이곡은 슈만이 클라라와의 사랑이 이루어지는 행복한 시기에 쓰여진 곡으로 하이네의 시가 부정적이기는 하지만 슈만은 이를 그대로 따르지 않고 아름다운 음악으로 승화 시키고 있음을 보여준다. 연주 해석에 있어서도 너무 어둡고 부정적으로 음악을 이끌기보다는 슈만의 온화하고 부드러운 느낌을 더 실어 따뜻하게 연주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다.

네 마디의 전주는 라인강의 잔잔한 물결을 연상시키듯 온화하고 부드럽게 16분음표의 분산화음으로 지속적으로 흐르듯 표현해준다.

오른손 선율선의 C<sup>#</sup>-D-C<sup>#</sup>-B-C<sup>#</sup>-D-C<sup>#</sup>는 제 5마디부터 나오는 성악선율을 미리 제시해 주고 있다. (악보 50)

(악보 50) 제 1마디~제 4마디(전주)

제 5마디~제 12마디의 1절은 맑은 라인강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으므로 거의 흐르지 않게 정적으로 연주한다. 2절은 ‘Ruhig seh(조용히 바라보는)’의 느낌을 살려 소리의 사운드를 줄인다. 제 11마디의 성악성부는 부점을 더 살려 노래하여 ‘bewegt(움직이다)’의 느낌을 살려주도록 한다. 3절에서는 ‘Strom Pracht(강물의 화려함)’을 노래하고 있으므로 오른손의 멜로디를 좀 더 부각시켜 화려한 느낌을 충분히 살려주도록 한다. 전체적인 조바꿈 대신 부속화음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악보 51)

(악보 51) 제 5마디~제 12마디

1절 "산과 성들은 아래로 비쳐 보이네. 거울처럼 맑은 라인강에,"

2절 "나는 조용히 장난치는 것을 바라보네, 황금빛 물결들이 출렁이며 노니는 것을."

3절 "다정히 인사하며, 내게 약속하면서, 화려하게 흐르는 강 아래로 나를 유혹하네."

5  
1. Berg' und Bur - gen schau - her - un - ter  
2. Ru - hig seh - ich zu dem Spie - le  
3. Freund - lich grü - ßend und ver - hei - ßend

9  
in den spie - gel hel - len Rhein  
gold - ner Wel - len, kraus - he wegt,  
lockt hin - ab des Stro - mes Pracht:

A ; I - V<sub>7</sub>/V V

제 13마디부터는 왼손반주의 움직임이 더욱 커지고 있다. 성악선율의 리듬이 각 절마다 조금씩 변화하고 있으므로 반주의 긴장을 잘 맞추어 가사의 변화에 따라 다르게 연주되도록 한다.

1절은 조각배가 즐거이 떠가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으므로 왼손의 움직임을 더 부각시키고, 제13마디와 제15마디의 베이스를 정확한 박자로 찍어주어 노래성부가 받아서 나올 수 있도록 한다.

2절은 소리의 사운드를 줄여 가슴속 깊이 묻어둔 ‘Still erwachen(고요한 감정)’ 을 묘사하고 제 13마디에서 제 16마디까지는 한 호흡으로 불러 지므로 베이스음이 두드러지지 않게 주의 한다. 제 17마디의 ‘tief(깊은)’ 을 강조하기 위해 8분 쉼표를 사용하여 die를 약박으로 시작하고 있으므로 왼손의 베이스로 크레센도 시켜 tief를 향하여 진행시킨다.

3절은 오른손 멜로디에 라인강 물결의 화려함을, 왼손 베이스에는 강 아래의 어두운 모습을 표현하여 양손의 색채감을 달리함으로써 서로 다른 이중성을 표현해준다. 제 13마디에서는 반전하는 ‘doch(그러나)’ 를 위해 왼손 베이스 A<sup>#</sup>을 강조시키고, 제 19마디의

‘Tod(죽음)’ 을 향하여 음악을 진행시킨다.(악보 52)

(악보 52) 제 13마디~제 24마디

1절 "그리고 내 조각배는 즐거이 떠나네, 사방에 밝은 햇살을 받으면서."

2절 "고요한 감정들이 눈을 뜨네, 내 가슴속 깊이 묻어두었던."

3절 "그러나 난 강을 알지: 걸으론 반짝이지만 그 속에 내면의 죽음과 밤이 있다는 것을."

13 und mein Schiffchen segelt munter,  
still er wa-chen die Ge-fuh-le,  
13 doch ich kenn ihn; o-ben glei-ß end.

vii<sup>o6</sup><sub>5</sub> / vii

V<sub>3</sub><sup>4</sup>

vii<sup>o4</sup><sub>3</sub> / vii

V<sub>2</sub><sup>4</sup>

17 rings um glänzt von Sonnen-schein,  
die ich tief im Bu-sen hegt',  
17 bringt sein Inn-res Tod- und Nacht,'

I 6

IV

V<sub>2</sub><sup>4</sup> / ii V<sub>7</sub> / ii

ii

21 rings um glänzt von Sonnen-schein.  
die ich tief im Bu-sen hegt',  
21 bringt sein Inn-res Tod- und Nacht.  
rit. rit.

V<sub>9</sub>

I

V<sub>7</sub>

I

—

제 25마디~제 28마디는 간주부분으로 각 절의 후주느낌으로 여운을 남기듯 연주한다. 1절의 간주는 오른손 윗 선율을 살려 ‘아름다운 라인강의 걸모습’을 노래하며, 2절은 8분음표의 내성진행에 더 비중을 두어 ‘가슴속 깊이 묻어둔 고요한 감정’을 묘사한다. 3절은 ‘내면의 죽음과 밤’을 노래하므로 어두운 색깔의 베이스 성부에 중점을 두어 연주한다. 이처럼 각 절이 지날수록 점점 색채감이 어두워질 수 있도록 한다. (악보 53)

(악보 53)제25마디~제 28마디(간주)

IV      V<sub>3</sub><sup>4</sup>    I<sub>6</sub> ii<sub>5</sub><sup>6</sup> vii<sub>5</sub><sup>6</sup>/iii    I<sub>4</sub><sup>6</sup>      V<sub>7</sub> I

제 29마디~제 36마디는 라인강의 양면적인 모습을 노래하고 있다. 제 35마디를 여유있게 rit로 표현하여 그러한 라인강의 모습이 바로 자신의 사랑의 모습임을 강조한다.(악보 54)

(악보 54)제 29마디~제 36마디

"겉으론 즐거움, 가슴속엔 악의  
강물아 너는 내 사랑의 모습!"

29  
4. O - - - ben Lust, im Bu - - - sen Tü - cken.

29  
29

33  
Strom, - - - du bist der Lieb - - - sten Bild!

33  
33

rit.

rit.

제 37마디~제 48마디에서는 성악부와 반주부가 서로 상반된 느낌을 갖고 연주한다. 성악성부는 라인강의 화려한 걸모습을 화려하고 밝은 색채로 노래하고, 반주부는 왼손에 비중을 두어 어두움과 죽음을 나타내도록 대조시켜 표현한다. (악보55)

(악보 55) 제 37마디~제 48마디

“또한 너처럼 상냥하게 고개 끄덕이고,  
미소 지을 땐 온순하고 부드럽네.”

The musical score consists of three systems, each with a vocal line and a piano accompaniment. The key signature is two sharps (D major or F# minor) and the time signature is 4/4. The lyrics are in German.

**System 1 (Measures 37-40):**  
 Vocal: Die kann auch so freundlich nicken.  
 Piano: Features a rhythmic accompaniment with eighth and sixteenth notes.

**System 2 (Measures 41-44):**  
 Vocal: lächelt auch so fromm und mild.  
 Piano: Continues the rhythmic pattern with some melodic flourishes.

**System 3 (Measures 45-48):**  
 Vocal: lächelt auch so fromm und mild.  
 Piano: The piano part concludes with a *rit.* (ritardando) marking.

제 49마디부터는 후주로 오른손 라인에는 라인강의 걸모습을. 왼손에는 내면의 상처를 담아 가사의 내용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듯 연주하며 제 51마디의 rit.을 지나 아르페지오 음형으로 바뀌면서 강물의 파장의 움직임처럼 한 번의 움직임을 갖고 점차로 가락이 소멸되고 변격종지(IV→I)로 곡을 끝맺는다. 제 54마디에 사용된 3화음이 생략된 IV<sub>4</sub><sup>6</sup>는 공허한 느낌을 살려주어 소멸되는 느낌을 더 해준다. (악보 56)

(악보 56)제 49마디~제 57마디(후주)

IV            V<sub>3</sub><sup>4</sup>        I<sub>6</sub>    ii<sub>5</sub><sup>6</sup>    vii<sub>5</sub><sup>6</sup>/iii        I<sub>6</sub>    IV<sub>6</sub>    V<sub>7</sub>

I            IV<sub>4</sub><sup>6</sup>        V<sub>5</sub><sup>6</sup>    IV<sub>4</sub><sup>6</sup>        -        I

8) Anfangs wollt ich fast verzagen (처음에는 희망도 없이)

(1) 가사의 원문 및 번역

Anfangs wollt' ich fast verzagen,	처음에 나는 거의 낙담하고 말았지.
und ich glaubt, ich trüg es nie,	그리고 결코 이겨낼 수 없을 거라 생각했어.
und ich hab' es doch getragen,	그러나 나는 견뎌냈지.
aber fragt mich nur nicht wie?	어떻게 그랬는지는 묻지 말아줘.

(2) 악곡분석

전 곡 중에서 제일 짧은 길이와 간단한 형식을 보이는 이곡은 짧은 민요 품의 곡으로, 고뇌를 견뎌낸 심정을 노래하고 있다. 빠르기는 악보에 제시되어 있지 않지만 보통 느리게 (Andante)로 연주되며 4/4박자 d단조의 곡이다.

이 곡을 도표화하면 다음과 같다.

제8곡 Anfangs wollt ich fast verzagen 의 구성

박자	구성	마디	조성
4/4박자	전주	1~2마디	d
	A'	3~6마디	d
	A'	7~11마디	C→d

2마디의 전주는 장엄하게 mf로 시작한다. 제1마디~제2마디와 노래가 시작되는 제 3마디~제 4마디의 성악선율을 미리 제시해주고 있다. 성악부가 시작 되는 제 3마디부터는 오른손의 사운드를 줄여 음색의 중심을 왼손으로 가져가고 ‘verzagen(절망)’ 하듯 저 음역에서 매우 단조로운 움직임으로 무겁고 어둡게 표현한다.(악보 57)

(악보 57)제 1마디~제 6마디

"처음에 나는 거의 낙담하고 말았지.  
그리고 결코 이겨낼 수 없을 거라 생각했어."

The musical score shows a vocal line and a piano accompaniment. The vocal line begins with a rest for two measures, then enters in measure 3 with the lyrics "Anfangs wollt ich fast verzagen, und ich glaube, ich trüg es nie,". The piano accompaniment features chords in the right hand and a steady eighth-note bass line in the left hand. The dynamic marking is *mf*.

제 6마디에서 제 7마디로 넘어가는 코드변화를 잘 느끼면서 ‘nie’와 ‘und’의 연결다리처럼 의미를 실어 연주한다. 제 7마디~제 10마디까지는 부속화음이 연속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화성적인 색채감을 살려 연주하도록 한다.

제 10마디~제 11마디는 ‘nicht wie’ 를 반복하며 반문하는데 제 10마디에서는 ‘nicht wie’ 를 하나의 프레이즈로 연결하고, 제11마디에서는 단어 하나씩 테누토 해주어 불러 강조해 주도록 한다.

중지부분에서는 I 도가 아닌 IV-V도로 끝나 반중지하여 미완성인 듯 끝난다. 무언가 여지가 남아있는 듯 곡을 마치며, 다음의 9번째 곡에서 D장조의 I도로 곡이 시작하며 종지가 되면서 새로운 곡으로 이어진다. 바로 이어 9번곡으로 연결되게 연주 한다.(악보58)

(악보 58) 제 7마디~제 11마디

"그러나 나는 견뎌냈지.  
어떻게 그랬는지는 묻지 말아줘."

d ; V<sub>5</sub><sup>6</sup>/C V<sub>2</sub><sup>4</sup>/IV IV<sub>6</sub> I<sub>4</sub><sup>6</sup> IV V I V<sub>2</sub><sup>4</sup>/IV vii<sub>5</sub><sup>6</sup>/V I<sub>4</sub><sup>6</sup> d; vii<sub>7</sub><sup>o</sup>/IV

iv iv<sub>6</sub> V iv V

## 9) Mit Myrten und Rosen (미르테와 장미꽃을)

### (1) 가사의 원문 및 번역

Mit Myrten und Rosen, lieblich und hold,	사랑스럽고 귀여운 미르테와 장미로,
mit duft'gen Cypressen und Flittergold	향기로운 사이프레스와 놋쇠 박편으로
möcht' ich zieren dies Buch wie'nen Totenschrein,	나 이 책을 관처럼 장식하리라.
und sargen meine Lieder binein.	그리고 그 안에 나의 노래를 묻고 싶다.
O könnt' ich Liebe sargen hinzu!	오 내 사랑도 거기에 묻을 수 있다면!
Auf dem Grabe der Liebe wächst Blümlein der Ruh,	사랑의 무덤위엔 안식의 작은 꽃들이 자라서,
da blüht es hervor, da pflückt man es ab,	꽃이 피면, 사람들은 그 꽃을 꺾겠지.
doch mir blüht's nur, wenn ich selber im Grab.	하지만 내가 무덤에 있을 때만 꽃필 거야.
Hier sind nun die Lieder, die einst so wild,	여기에 노래들이 있네, 한때는 거칠게
wie ein Lavastrom, der dem Ätna entquillt,	에트나 산에서 분출한 용암같이.
hervor gestürzt aus dem tiefsten Gemüt,	마음속 깊은 곳에서 솟구쳐 올라,
und rings viel blitzende Funken versprüht.	번쩍이는 수많은 불꽃을 곳곳에 흩뿌렸다.
Nun liegen sie stumm und todtengleich,	이제 말없이 누워있네. 죽은 자들처럼,
nun starren sie kalt und nebelbleich.	이제 차갑게 굳고 안개처럼 창백하구나.
Doch auf's Neu' die alte Glut sie belebt,	그러나 새롭게 옛 열정이 살아나리라,
wenn der Liebe Geist einst über sie schwebt.	사랑의 영혼이 언젠가 그 위를 떠돌 때면.

Und es wird mir im Herzen viel Ahnung laut:

der Liebe Geist einst über sie taut:

Einst kommt dies Buch in deine Hand,

Du süßes Lieb im fernen Land.

Dann löst sich des Liedes Zauberbann,

die blassen Buchstaben schau'n dich an,

sie schauen dir flehend in's schöne Aug',

und flüstern mit Wehmut und Liebeshauch.

내 마음속에 많은 예감들이 소리치겠지:

사랑의 영혼이 언젠가 그 위에 이슬처럼 내리면

언젠가 이 책은 당신의 손에 들어가리라.

먼 나라에 있는 그대 내 달콤한 사랑이여.

그렇게 되면 노래들은 마법이 풀려

창백한 문자들이 그대를 응시하리라.

당신의 아름다운 눈을 간청하듯 바라보며

애수와 사랑의 입김으로 속삭이리라.

(2) 악곡분석

이 곡은 깊이 감격하여 쓴 노래도 지금은 죽은 사람과 같으므로 묻어버리고 싶다는 노래로, 이루지 못한 사랑의 승화를 나타내고 있다. 자유로운 통절형식으로 A-B-A'-C-D의 형식으로 4/4박자 .D장조의 곡이다.

이곡을 도표화하면 다음과 같다

제9곡 Mit Myrten und Rosen 의 구성

빠르기	박자	구성	마디		조성
Innig, nicht rasch	4/4박자	A	전주	1~4마디	D
			a	4~14마디	D
		B	간주	14~16마디	b
			b	16~24마디	b
			간주	24~28마디	D
		A'	a'	28~49마디	D→d <sup>#</sup> →D→d <sup>#</sup> →D →b→D
		C	c	50~62마디	G→D
		D	d	62~71마디	e→D
			후주	71~76마디	D

이루지 못한 사랑을 긍정적으로 승화시키고 있는 이 곡은 곡 전반에 보이는 셋잇단음표로 통일성을 꾀하고 있으며 변성화음과 부속화음의 사용으로 색채감을 더해주고 있다. 또한 제 1곡에서 제 8곡에 이르기까지 보여졌던 선율의 진행이나 반주의 형태들이 종합적으로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제 1마디~제 4마디의 전주는 셋잇단음표를 반복하여 강조하며 상행시키고 있으며 성악성부의 선율을 미리 제시하고 있다. 오른손의 셋잇단음표를 미르테와 장미, 싸이프레스와 금박을 연상하며 따뜻하고 사랑스러운 마음을 담아 제 2마디의 F<sup>#</sup>까지 향하게 한다. (악보 59)

(악보 59) 제 1마디~제 4마디(전주)

1 *Innig, nicht rasch*

D ; I -<sub>4</sub><sup>6</sup> V<sub>6</sub> V vi V<sub>5</sub><sup>6</sup>/vi vi V<sub>5</sub><sup>6</sup>/vi vi<sub>6</sub> V<sub>5</sub><sup>6</sup>/ii ii V

제 4마디부터 선율의 흐름을 타고 성악성부가 못갓춘마디로 시작하며 전주의 느낌을 그대로 가사로서 발전시켜 구체화 시켜주고 있다. 반주부는 제 6마디의 세 번째 박자에 악센트를 주어 연주되지만 노래성부는 ‘hold(귀여운)’ 를 표현하기 위해 악센트가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한다.

4분표의 코드진행은 6마디의 F#까지 음폭을 넓혀주고, 제 8마디의 ‘Fittergold(금박)’ 까지 한 흐름으로 온 후 성악가와 함께 호흡한 뒤 ritard.하여 ‘mocht ich(난 꾸민다)’ 를 한음씩 강조한다.

제 10마디의 ‘Totenschrein(죽음의 절규)’ 를 강조하기 위해 반진행하는 피아노의 왼손 베이스라인을 점점 깊게 눌러 마지막 2분음표 코드를 풍부하게 울리게 하여 음폭을 넓혀준다. rit.이후 반주부는 스타카토 처리하며 노래선율은 molto legato시킴으로써 정점에 이른 후의 음향적 효과를 처리한다. (악보60)

(악보 60)제 4마디~제 12마디

"사랑스럽고 귀여운 미르테와 장미로,  
향기로운 싸이프레스와 늦쇠 막편으로  
나 이 책을 관처럼 장식하리라."

Mit Myr - ten und Ro - sen, lieblich und hold, mit  
duft' - gen Cy - pres - sen und Flit - - ter - gold möcht' ich zie - ren dies Buch wie 'nen  
To - - tenschein, und sar - gen mei - ne Lieder hin - ein. O

제 12마디 마지막 박부터는 ‘O könnt’ ich die Liebe sargen hinzu!(오 내 사랑도 거기 묻을 수 있다면!)’ 를 간절한 마음을 담아 rit.로 연주하고 변성화음을 통한 색채감을 표현한다. 제 14마디부터 갑작스레 b단조로 전조되고 있다. (악보 61)

(악보 62)제 12마디~제 16마디

"오 내 사랑도 거기 묻을 수 있다면!"

12 *p* ri - tar - dan - do *p*  
 Lieder hin-ein. O könnt' ich die Lie-be sar-gen hin zu! Auf dem  
 12 *mf* *p* *mf*  
 ri - tar - dan - do

V I iv I iv I V<sub>7</sub>/b i iv V<sub>7</sub>

(d) (d)

제 16마디~제 18마디의 상행하는 셋잇단음표들은 안식의 꽃이 자라나듯 점점 *crecs.* 해주도록 하고 제 19마디~제 20마디의 8분음표의 엇박 리듬은 여기저기서 꽃이 피어나는 것을 묘사하듯 스타카토로 처리한다.(악보 62)

(악보 62)제 16마디~제 20마디

"사랑의 무덤위엔 안식의 작은 꽃들이 자라서  
꽃이 피면, 사람들은 그 꽃을 꺾지."

16 *p* Auf dem Gra - be der - Lie - be "wacht Blümlein der Ruh; da

19 blüht es her - vor, da pflückt man es ab, doch

제 20마디의 ‘Doch(그러나)’ 부터는 내가 무덤에 있을 때만 꽃이 필 것이라는 안타까운 마음을 담아 당김음 리듬을 사용하여 서서히 ritard.하고 제 23마디 후반부터 점점 cresc. 해 주면서 반전되는 분위기에 준비한다. (악보 63)

(악보 63) 제 20마디~제 25마디

“하지만 내가 무덤에 있을 때만 꽃필 거야.”

20  
pflückt man es ab, doch mir blüht's nur, wenn ich

22  
ri - tar - - dan - - do  
sel - ber im Grab. wenn ich sel - ber im Grab.

22  
ri - tar - - dan - - do

*f*

제 24마디 마지막 박부터는 tempo를 다시 잡아 f로 시작한다. 전주와 같은 선율을 연주하지만 앞과는 달리 스타카토가 등장한다. 볼륨과 성격을 바꿔 f로 강하게 시작해주고 셋잇단음표들은 ‘Lavastrom(용암)’이 쏟아져 나오듯 움직임의 강하게 해주어 이어지는 가사를 미리 예시한다.

제 29마디부터는 반주음형의 반진행을 통해 음역을 확장된다. ‘so wild(거친)’을 묘사하듯 강하게 몰아가며 cresc. 해주어 sf로 강조해준다. 제 32마디의 rit.후 다시 같은 느낌으로 상행하는데 제 34마디의 2분 음표를 더욱 깊고 강하게 울려주어 ‘tiefsten Geumut(마음 깊은곳)’에서 솟아나는 노래들을 표현한다. 이어지는 제 35마디의 반주부의 스타카토로 ‘blitzende Funken(번쩍이는 불꽃)’을, 성악성부의 짧은 8분 음표로 흩뿌리는 모습을 묘사한다.(악보 64)

(악보 64) 제 24마디~제 36마디)

“여기에 노래들이 있네, 한때는 거칠게  
에트나 산에서 분출한 용암같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솟구쳐 올라,  
번쩍이는 수많은 불꽃을 곳곳에 흩뿌렸다.”

24 *f* Hier

29 sind nun die Lic - der, die einst so wild, wie ein La - va - strom, der dem Ät - na entquillt, her -

33 vor - gestürzt - aus dem tiefsten Gemüt, und

35 rings viel blit - zen de Funken verspruht. - Nin *p*

제 37마디~제 40마디는 제 13마디~제 14마디와 동일한 형태로 반복되어 강조되고 있다. 제 37마디와 제 38마디의 2분 음표들은 마치 죽은 듯 정지된 느낌으로 작은 가운데서도 악센트를 살려 표현해주고 제 38마디의 왼손 셋잇단음표를 pp로 받아 ‘starren sie kalt und nebelbleich(차갑게 굳고 안개처럼 창백하구나)’의 가사를 rit.로 표현한다. (악보 65)

(악보 65) 제 36마디~제 40마디

“이제 말없이 누워있네. 죽은 자들처럼,  
이제 차갑게 굳고 안개처럼 창백하구나.”

36 *p* *pp*  
 Funken verspruht. Nin lie - gen sie stumm und to - tengleich, nun \_\_\_\_\_

39 *rit.* *mf* *a tempo*  
 starren sie kalt und ne - belbleich. Doch aufs

제 40마디의 ‘Doch(그러나)’ 부터는 a tempo로 돌아오며 다시 반전된다. 제 41마디~제 48마디는 셋잇단음표로 진행하던 앞의 반주 패턴과는 달리 화음구조의 강한 음향으로 되어있는데, 새롭게 옛 열정이 다시 살아나는 느낌을 살려 4분음표의 코드들을 움직임에 갖고 생기 있게 연주한다. 제 43마디에서는 음폭이 큰 2분 음표코드를 베이스로부터 깊게 f로 울려 ‘wenn der Liebe Geist einst über sie schwebt(사랑과 영혼이 언젠가 그 위를 떠돌때면)’ 를 표현한다. 제 43마디부터는 높은 음역의 선율로 가사를 다시 한번 반복함으로써 강조하고 있다.(악보 66)

(악보 66)제 40마디~제 48마디

“그러나 새롭게 옛 열정이 살아나리라,  
사랑의 영혼이 언젠가 그 위를 떠돌 때면.”

40 *rit.* *mf* *a tempo* *f*

ne - belleich. Doch aufs neu' - die al - te Glut sie be - lebt, wenn der

D ; IV I V<sub>7</sub>/d<sup>#</sup> i V<sub>7</sub>/D I V<sub>7</sub>/d<sup>#</sup> i V<sub>7</sub>/D I V<sub>5</sub><sup>6</sup>/IV

(d)

43 *f*

Lie - be Geist einst ü - ber sie schwebt, doch aufs neu' die al - te

IV V<sub>5</sub><sup>6</sup>/V I<sub>4</sub><sup>6</sup> V<sub>7</sub> I V<sub>5</sub><sup>6</sup>/b i V<sub>3</sub><sup>4</sup> i<sub>6</sub> vii<sub>7</sub><sup>o</sup>

46 *rit.* *f* *Schneller*

Glut sie be - lebt, wenn der Lie - be Geist einst ü - ber sie schwebt.

i V<sub>3</sub><sup>4</sup> i<sub>6</sub> V<sub>5</sub><sup>6</sup>/IV IV V<sub>3</sub><sup>4</sup>/IV IV<sub>6</sub> - I<sub>4</sub><sup>6</sup> V<sub>7</sub> I

D ; ii<sub>6</sub> ↗

제 49마디~제 50마디는 템포가 Schneller로 빨라지며 조용하고 잔잔한 시의 내용에 반해 음악은 발랄한 느낌으로 상반된 표현을 하고 있다.

제 1번곡에서 쓰였던 양손의 주고받는 8분음표의 스타카토 리듬형태가 다시 사용되고 있는데 8분 음표 스타카토를 가볍게 처리하여 ‘schwebt(가볍게 떠있는)’ 를 살려주도록 하며 제 50마디의 rit.후 싱어는 다시 분위기를 바꿔주며 가사의 내용에 충실하게 부르도록 한다. (악보 67)

(악보 67)제 49마디~제 54마디

“내 마음속에 많은 예감들이 소리치겠지:  
사랑의 영혼이 언젠가 그 위에 이슬처럼 내리면”

49 Schneller *p* ritard.  
schwebt. Und es wird mir im Her - zen viel

49

52  
Ah - nung laut: der Lie - be Geist einst ü - ber sie taut;

52

제 55마디~제 58마디는 언젠가 이 책이 사랑하는 애인에게 전달되리라는 간절한 마음에 심장이 두근거리듯 양손이 주고받는 연타로 묘사되며 제 59마디~제 60마디는 ‘sußes Lieb(사랑하는 애인)’ 을 두 번 반복하며 강조하고 있다. 제 61마디의 ‘Lieb im fernen Land(먼 나라에 있는 그대)’ 를 부를때는 죽음으로 인해 서로 다른 세상에 있게 됨을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rit.하면서 < > 한다. (악보 68)

(악보 68)제 55마디~제 62마디

“언젠가 이 책은 당신의 손에 들어가리라.  
 먼 나라에 있는 그대 내 달콤한 사랑이여.”

55 *p*  
 einst kommt dies Buch in deine Hand, du

59 *ritard.* *p*  
 süßes Lieb, du süßes Lieb im fernen Land. Dann

제 63마디부터는 템포가 ‘Lansamer und immer lansamer’ 로 바뀌면서 시와 음악을 정리하고 있다. 양손의 주고받는 8분 음표는 설레는 마음의 두 근거림을 담아 pp로 표현하고 제 64마디의 ‘Zauberbann(마법)’ 과 제 66마디의 ‘schau’n(바라보다)’ 를 노래 할 때는 왼손의 꾸밈음과 오른손의 슬러 스타카토를 살려주면서 조금 여유 있게 연주한다.

제 67마디~제 68마디는 ‘schöne Aug(아름다운 눈)’ 을 묘사하듯 여유있게 rit.하며 왼손의 꾸밈음들을 처리하고 제 69마디부터는 Adagio로 더 느려져 사랑의 숨결로 속삭이듯 하나의 라인의 가벼운 스타카토로 연주한다.  
(악보 69)

(악보 69)제 62마디~제71마디

“그렇게 되면 노래들은 마법이 풀려  
창백한 문자들이 그대를 응시하리라.  
당신의 아름다운 눈을 간청하듯 바라보며  
애수와 사랑의 입김으로 속삭이리라.”

62 *p* *Langsamer und immer* *langsamer*  
 Land. Dann löst sich des Lie - des Zau - erbann, die

V<sub>7</sub>

V<sub>2</sub><sup>4</sup>/ii

63 blas - sen Buch - staben schau'n dich an, sie

V<sub>7</sub>

vii<sup>o</sup>/IV

67 *ritard.* *Adagio*  
 schauen dir flehend ins scho - ne Aug; und flüstern mit Wehmut und

vii<sup>o</sup>/V

I<sub>4</sub><sup>6</sup>

V<sub>3</sub><sup>4</sup>/V

V<sub>3</sub><sup>4</sup>

I

V<sub>3</sub><sup>4</sup>

I<sub>6</sub> vii<sup>o</sup>/iii

70 Lie - bes - hauch.

I<sub>4</sub><sup>6</sup>

V<sub>2</sub><sup>4</sup>/IV

V<sub>7</sub>

I

제 71마디부터의 후주는 ‘Liebeshauch(사랑의 입김)’을 연상하며 왼손과 오른손의 오르내리는 선율을 p로 부드럽게 연주한다. 제 72마디의  $\text{vii}_7^\circ$  화음은 사랑의 아픔의 노래하듯 테누토로 강조하고 제 73마디~제 74마디는 이루지 못한 사랑의 아쉬운 마음을 담아 pp로 반복한다.

제 75마디의 4분 음표를 D장조의 으뜸화음으로 정리하여 마무리 하고 마지막 두 번의 2분 음표 화음은 책장을 덮으며 마지막 바람을 그 속에 담아 내듯 간절한 마음을 담아 마음을 담아 조용히 곡을 맺는다. 이러한 끝맺음 형태는 그 뒤로도 슈만의 많은 가곡 작품에서 많이 사용된다.(악보 70)

(악보 70)제 71마디~제 76마디(후주)

71  
hauch.  
71  
*p*  
71  
*pp*

D ; I  $-4^6$   $\text{vii}_7^\circ$  I  $-4^6$

74  
74  
*p*

$\text{vii}_7^\circ$  I - -

#### IV. 결 론

슈만은 19세기 낭만주의 음악, 특히 예술가곡 부분에서 당대의 누구보다도 큰 업적을 남긴 작곡가이다. Liederkreis Op.24는 슈만이 클라라와 결혼한 해인 1940년 2월에 작곡된 최초의 연가곡으로 이후 작품과 비교해서 슈만의 작품경향을 추론해 낼 수 있는 중요한 역사적 자료이다.

이 가곡집의 9곡을 총괄적으로 분석 연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제 1곡(Morgen steh ich auf und frage)은 ‘Allegretto’로 아침부터 밤까지 사랑에 괴로워하는 젊은이의 심리를 묘사한 곡으로써 왼손과 오른손의 주고받는 스타카토 리듬으로 두근거리는 심장작동을 묘사하였다. 리타르단도와 미묘한 조바꿈을 통해 변하는 감정의 움직임이 잘 표현해야 하며 후주는 해결되지 못한 채 궁금함을 남기듯이 끝맺는다.

제 2곡(Es treibt mich hin)은 ‘Sehr rasch(아주 서둘러서)’로서 사랑스런 연인을 기다리는 젊은이의 초조한 심경을 묘사한 곡으로 빠른 템포를 통해 연속적으로 전개되는 스타카토 리듬으로 조급함을 나타내고 있다. 점 4분음표와 레가토 음형으로 더디게 가는 시간을 묘사하고 있으며 후주는 당김음 리듬을 이용하여 조급한 마음을 강조해 몰아치듯 힘 있게 끝맺는다.

박진감 넘치는 제 2곡에 반하여 제 3곡(Ich Wandelte unter den Bäumen)은 ‘Ziemlich langsam(꽤 느리게)’으로 시작한다. 이 곡은 사랑의 슬픔에 잠긴 젊은이가 옛 꿈을 회상하고 홀로 슬퍼하며 나무그늘을 거니는 모습을 노래한 곡으로 같은 구조와 리듬일 지라도 가사의 내용에 따라 표현을 달리하여야 한다. 새들이 노래하는 장면은 높은 음역과 조성의 변화를 사용하여 묘사하고 있으며 후주는 다시 회상하는 장면을 시작하며 아쉬움을 남기듯 불완전한 정격종지로 곡을 끝맺는다.

제 4곡(Lieb Liebchen, leg's Händchen)은 ‘Nicht Schnell(빠르지 않게)’로 민요풍의 단순한 유희형식의 곡으로 전주와 후주가 없는 특징을 보인다. 오

른손의 엷박 리듬을 통해 사랑하는 연인에 대한 심장의 고동치는 소리와 목수의 망치소리를 묘사하고 있다.

제 5곡 (Schöne Wiege meiner Leiden)은 'Bewegt(움직임을 가지고)'로 4곡의 Tempo에서 좀 더 확장된 템포를 가지며 리더크라이스 Op.24중 규모가 가장 큰 곡으로 A-B-A'-C-A" 의론도 형식으로 구성되어있다. A부분의 반주부는 지속적인 엷박 리듬으로 나타나며 조금씩 형태를 바꾸면서 반복되고 있다. B부분에서는 갑작스런 전조로 분위가 바뀌고 감정이 고조되어 탄식하듯 연주하고 C부분은 실연의 상처가 끓어오르는 광기로 표현되다 병들고 나약해진 내면을 묘사한다. 다시 재현되며 반복되는 A에서는 헤어지는 아쉬움의 여운을 슬픔을 갖고 나타낸다. 이곡은 특히 슈만의 특징 중 하나인 후주부의 연장이 두드러지는 곡이다.

제 6곡(Warte, warte, wilder Schiffmann)은 'Sehr rasch(아주 서둘러서)'로 불행과 죽음에 대해 초조하고 불안해하는 심정을 일관된 스타카토 리듬으로 묘사하며 잦은 전조로 원망과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동형진행을 통해 고통에 얽매인 젊은이의 모습을 표현해주고 괴로운 마음을 연속되는 부속 화음의 사용으로 화성의 색깔로 나타내고 있다. 이 곡 또한 제 5곡과 함께 긴 후주부가 나타나는 곡이며 연장된 후주부의 여운이 곡을 마무리 하는데 있어 피아노 반주부의 활약을 극대화 시킨 곡이라 볼 수 있다.

제 7곡(Berg' und Burgen schau herunter)은 'Ruhig, nicht schnell(조용히, 서두르지 말고)'로 4절의 유절가곡 형태로 되어있다. 전체적으로는 라인강의 물결을 피아노 반주부를 통해 묘사하며 겉으로는 반짝이지만 내면에는 죽음과 밤이 있는 라인강에 자신을 비유하며 노래하고 있다. 1절부터 4절까지 가사의 내용에 따라 의미를 달리 하여 연주해야 한다. 이 곡은 슈만과 하이네의 곡을 바라보는 관점이 상반 되고 있으며 Tod(죽음)란 단어가 처음으로 등장한다.

제 8곡(Anfangs wollt ich fast verzagen)은 전체에서 가장 짧은 곡으로

간단한 화성반주로 되어있다. 왼손의 옥타브반주와 오른손의 화음으로 절망적인 분위기를 나타내고 있으며 종지부에서는 I도가 아닌 IV-V도로 끝나 무언가 여지가 남아있는 듯 곡을 마치며 바로 이어 9번곡으로 연결되게 연주 한다.

제 9곡(Mit Myrten und Rosen)은 'Innig, nicht schnell(내면적으로, 서두르지 말고)'로 이루지 못한 사랑을 긍정적으로 승화하고 있는 곡으로 전주에 나오는 4분 음표와 셋잇단음표의 모티브가 곡 전체에 통일감을 주고 있으며 왼손과 오른손의 주고받는 엇박 리듬으로 애인을 향한 간절한 마음을 묘사하고 있다. 후주는 이루지 못한 사랑의 아쉬움을 간직한 채 조용히 끝맺는다.

Liederkreis Op.24는 사랑과 죽음에 관한 내용을 가진 곡들로써 9개의 시들은 각각 시의 운율을 지키면서 선율을 통해 음악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제 4곡을 제외하고는 모든 곡이 전주를 가지고 있고, 제 4곡과 제 8곡을 제외한 모든 곡이 후주를 가지고 있다. 이 작품을 통해 알 수 있는 슈만 가곡의 특징으로는 긴 후주를 들 수 있으며 노래로 표현하지 못한 아쉬움의 표현이나 해결되지 못한 궁금증을 후주를 사용하여 부각시키고 있다.

노래의 형식은 통절형식(제 1곡, 제 2곡, 제 5곡, 제 8곡, 제 9곡)과 유절형식(제 7곡), 변형된 유절형식(제 3곡, 제 4곡, 제 6곡)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사용된다.

슈만의 가곡은 단어나 가사에서 오는 내용 및 의미가 반주부에 묘사되어 있고 Tempo가 각 곡의 긴장을 결정지어 주고 있으므로 이 또한 연주자가 시의 내용을 음미하여 음악의 섬세한 표현을 하고 반주부의 역할을 충분히 이해하여 시와 노래와 반주의 특성을 살려주어야 한다.

## 참 고 문 헌

### 1. 국내 서적

- 강만희. 2005. **간추린 19세기 낭만음악사**, 대전 : 예광.
- 김수용. 1997. **하이네(예술과 참여의 끝없는 물음)**, 서울: 건국대학교 출판부.
- 김용환. 2005. **서양음악사.19세기 음악**, 서울: 음악세계.
- 민은기. 2007. **서양음악사**, 서울: 음악세계.
- 백병동. 1998. **화성학**, 서울: 수문당.

### 2. 국외 번역서적

- Gorrell, Lorraine. 1999. **Nineteenth-century German lied** (19세기 독일가곡),  
심송학 역. 서울: 음악춘추사.
- Kimball, Carol. 2004. **Song**(하권), 채은희 역. 서울: 도서출판 형설.
- Rey, Longyear. 2001. **Nineteen-century Romanticism in Music**, 김혜선 역.  
서울: 도서출판 다리.
- Heinrich, Heine. 2001. **Buch der Lieder**, 김재혁 옮김. 서울: 문학과 지성사.
- Arnold, Werner-Jensen, Ratte Franz Josef, and Ernst Manfred. 2006.  
**The Music** (음악의 역사), 이수영 역. 서울: 도서출판 예경.
- 음악세계 옮김, 2002. **명곡해설 라이브러리 슈만 vol. 14**, 서울: 음악세계.

### 3. 외국서적

Frederick Jensen, Eric. 2001. Schumann(The Master Musician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Inc.

Gerald, Moore. 1981. Dichterliebe (Die Lieder und Liederzyklen Robert  
Schumann), Tübingen: Wunderlich

Sadie, Stanley. 2001. The New Grove Dictionary of Music and Musicians,  
Vol. 22, Londen: Macimllian publishers Ltd.

### 4. 사전류

서울대학교 서양음악연구소 편. 2001. Dictionary of Music, 서울: 음악세계

양일용 편저. 2004. 음악용어 대사전, 서울: 태림출판사

편집국 편. 1996. 음악대사전, 서울: 세광음악출판사

### 5. 학위논문

박숙현. 슈만의 가곡 「Der arme peter」 Op. 53의 분석연구. 석사학위 논문,  
동아대학교, 2007

박종석. 슈만의 연가곡 리더크라이스 Op. 24에 관한 연구  
- 리듬구조를 중심으로. 석사 학위논문 경원대학교 2004

백송희. Robert Schumann의 <Liederkris, Op. 24>에 관한 반주 연구.  
석사 학위논문, 성신여자대학교, 2004

조혜진. Robert Schumann 의 Liederkreis, Op. 24에 관한 연구

- 성악성부와 피아노 반주의 관계를 중심으로. 석사 학위논문  
동덕여자대학교, 2000

이경옥. R. Schumann의 Liederkreis에 대한 연구 - Op. 24를 중심으로.

석사학위 논문, 이화여자대학교, 1986

이정애. Robert Schumann 의 연가곡 Liederkreis, Op. 24에 관한 연구

- 반주와 시의 관계를 중심으로. 석사 학위논문, 한양대학교, 2006

최연희. R. Schumann의 「LIEDERKREIS」 op. 24에 관한 분석 연구.

석사 학위논문, 대구카톨릭대학교, 2007

## 6. 악보

Schumann, Robert. Lieder für eine Singstimme mit Klavierbegleitung

Band II: Original Ausgabe für (hohe Stimme), C. F. Peters

## ABSTRACT

### The Analysis and Research regarding the 'Liederkreis von Heine Op.24' of R. Schumann

Choi, Sook-Hee  
Department of Accompanying  
Graduate School  
Sungshin Women's University

Robert Schumann (1810–1856) married to Clara Schumann in 1840 and it was a turning point in his life. Shortly after their wedding, Schumann composed many lieder that were more greatly valued as they suggested the ideal type of nineteenth-century lied more than his other lieder.

This year, 1840, was called the year of the lied, and this period was the climax of Schumann's artistry.

Liederkreis op.24 was composed in February 1840 a few months before their wedding. Schumann composed music for nine poems in Heine's *Buch der Lieder*. Liederkreis is significant in that it belongs to the early part of Schumann's song cycle after his piano music period. In fact, Liederkreis was the first lied of his song cycle.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understand Schumann's works in depth through the analysis of Liederkreis op.24. Also, the writer will explore the characteristics of Schumann's lied in all its aspects as well as the characteristics of the poet Heine and Schumann's lied for Heine's poems. Through the study of the original text of the poems, the translations, and

an analysis of both, this paper will not only help us understand the correlation between the poems and the accompaniment, but also highlight Schumann's highly effective accompanying skills.

This paper scrutinizes the structure of the music using the chart along with the correlation between the poems and the accompaniment after examining the change of the keys, articulations, dynamic phrases, and other factors.